

선생님과 학생의 수업을 잇는



# 잇다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개통



공공·민간의 교육용 콘텐츠를  
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해요.

교원이 직접 만든 콘텐츠 및 활용법을 다른 교원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통 기능을 지원해요.



교사가 쉽고 편리하게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도록  
수업자료의 저작 및 활용 도구를 제공해요.

에듀넷 통합인증을 통해 디지털교과서,  
지식샘터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itda.edunet.net](http://itda.edunet.net)

학생의 교육 2021년 10월 특별기획 - 모두가 평생을 하는 거예요~

10

vol.471

2021 OCTOBER

# 행복한 교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 09 네 꿈을 펼쳐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여자축구 동아리  
'즐거는 축구' 사회생활의 밑거름이 되거라~

## 37 정책을 말하다

사립학교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 48 교육포커스

코로나19와 예술교육의 새로운 도전

## 54 진로직업인

이찬중 이삭애견훈련소 소장  
인간과 반려견의 행복한 공존을 꿈꾸다



교육부

# 학교돌봄터가 9월부터 운영됩니다!

## 학교돌봄터란?

초등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시설로서,  
지자체-교육청-학교가 협약을 맺어 준비하여  
2021년 9월부터 전국 19개 학교에서 운영됩니다.

## 학교돌봄터가 생겨서 좋아지는 점!

방과후 오후돌봄(13시~17시)을 포함하여  
아침 및 저녁돌봄까지 제공하여  
맞벌이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지역 내 돌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아침돌봄과 저녁돌봄 운영

앞으로 학교돌봄터는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해서  
다양하고 질 높은 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부모님들의 자녀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CONTENTS

## 20

특별기획

### 공부는 평생 하는 거래요~



저출산의 여파로 학생 수가 지속해서 줄면서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숫자는 사상 처음으로 6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대학 신입생 총원율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평생교육, 평생학습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배가시키고 있다. 여기서는 모든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동네 평생학습관과 온라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교육부의 평생교육 정책 등을 소개한다.

모든 국민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나라  
우리 동네 평생학습관을 아십니까?  
배움에 의지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평생교육!  
평생학습, 나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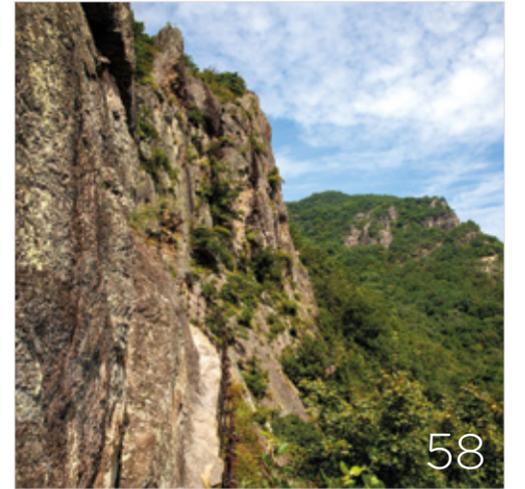
## 37

정책을 말한다

### 사립학교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립학교는 우리나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학의 부정·비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의 요구가 높았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 8월 31일,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정된 법안에는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선임제한 기간 연장 및 당연퇴직 사유 규정, 사무직원에게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권,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 담보 조항 등이 신설되었다. 달라지는 사립학교법을 소개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수도전기공고 풋살장은 여고생들의 공 차는 소리와 '파이팅'을 외치는 함성으로 활기를 되찾는다. 축구공 하나로 선후배 간의 친목을 다지고 스트레스를 풀어난 여자축구부원들은 "우리의 목표는 축구를 즐기는 것"이라고 당당히 말한다.

**발행일** 2021년 10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신문규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임용빈  
 사무관 이인숙 주무관 강미진  
**편집장** 이순이  
**기자** 양지선, (객원)김혜진, (객원)강지영  
**사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웹진** www.happyedu.moe.go.kr  
**제보** eduzine21@gmail.com  
**전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 특별기획**  
**공부는 평생 하는 거래요~**  
 모든 국민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나라  
 우리 동네 평생학습관을 아십니까?  
 배움에 의지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평생교육!  
 평생학습, 나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교육

**54 진로직업인**  
**반려동물 훈련·상담사\_이찬중 이삭애견훈련소 소장**  
**인간과 반려견의 행복한 공존을 꿈꾸다**

**04 꿈이 영그는 현장**  
 강원 홍천남산유치원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들

**09 네 꿈을 펼쳐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여자축구 동아리  
 '즐거는 축구' 사회생활의 밑거름이 되거라~

**12 삶과 교육**  
 박래광 서울 영림중학교 교장  
 배움과 돌봄의 교육공동체를 향한  
 '어쩌다 교장'이 전하는 혁신 이야기

**16 교실혁명**  
 누구나 할 수 있는 성평등 교육

**37 정책을 말하다**  
 사립학교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40 교육웹툰**  
 어린이 TAAS로 우리동네 위험지역 찾아볼까?

**42 교육자치시대**  
 대구광역시교육청\_기초·기본학력 향상 지원체제  
 한 아이도 놓침 없이 '학력 탄탄' 맞춤 지원

**45 명예기자 리포트**  
 교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지금 당신에게 편지합니다' 외

**48 교육포커스①**  
 위기를 기회로! 코로나19 속에서 발전하는 음악교육

**51 교육포커스②**  
 위드 코로나 시대 예술교육의 방향과 대안

**58 일상의 씬표**  
 안전한 굴(窟)의 도시, 구미

**62 이달의 교육뉴스**  
 교육부·시도교육청, 교육회복 위해 하반기 5조 3,619억 투입 외

**64 숫자로 읽는 교육**  
 159,864명

강원 홍천남산유치원

#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들



코로나19 발발 이후 유아교육 현장은 어땠을까? 질병에 취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휴원이 늘었고, 덩달아 학부모의 불안도 커졌다. 저출산으로 인한 유아 수 감소까지 겹치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9월, 강원도 홍천군의 작은 시골 마을 장전평리에 공립 단설유치원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시내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홍천남산유치원(원장 김명희)에는 102 명의 아이들이 매일 등원하며 조용한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철저한 방역 속에서 유치원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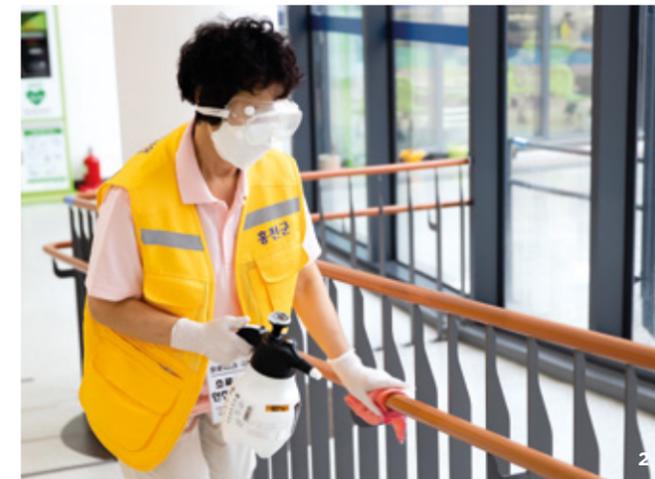
글\_ 양지선 기자

지난 9월 7일, 홍천남산유치원에 도착한 취재진을 처음 반긴 것은 마을 어르신이었다. 손 소독과 체온측정 등 익숙하게 방역수칙을 안내한 유정숙 씨는 홍천군 노인일자리 전담센터를 통해 홍천남산유치원에서 주 5일, 하루 4시간씩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손잡이 소독하고, 청소도 해요. 이 나이 먹고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최고로 보람 있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거기다 아이들도 손주 보는 것 같고 너무 예쁘고요.”

지난해 9월 개원한 홍천남산유치원은 홍천군 노인일자리 전담센터와 협력해 올해 3월부터 유치원 주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초록세상지킴이’로 선정했다. 마을 주민들은 매일 아침 등원하는 아이들의 방역 지원, 도서실 정리 지원, 유치원 주변을 비롯한 마을 꽃길 가꾸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김명희 원장은 “어르신들과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친숙감과 고마움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단순히 청소나 방역활동뿐 아니라 산책 보조, 김장 나눔, 송편 빚기 활동에도 도움을 주시면서 마을 어르신, 교사, 아이들까지 3세대 간 화합이 이뤄진다.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어르신들과 더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 1 “다 같이 김치~” 마스크에 가려진 해맑은 미소가 사랑스러운 홍천남산유치원 사랑반 아이들
- 2 홍천남산유치원은 홍천군 노인일자리 전담센터와 협력해 유치원 주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초록세상지킴이’로 선정했다. 마을 주민들은 아이들의 방역 지원, 도서실 정리 지원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3 “할머니, 이걸 무슨 풀이에요?” 산책 시간, 마을 어르신들은 아이들의 선생님이 된다.



1

2

3

### 유치원이 생기며 활기를 되찾은 마을

홍천남산유치원이 마을과 협력하게 된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다. 홍천군 시내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아이들이 밀집되면서 교실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자, 이를 공립 단설유치원으로 분리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신설 유치원 터로 찾은 곳이 바로 시내와 가까우면서도 산과 들, 개울이 있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장전평리였다. 학생 수가 부족해 지난 1997년 폐교된 장전초등학교 자리에 유치원이 들어선 것이 모순적이지만, 덕분에 70세 이상 인구가 대부분인 조용한 마을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장전평리 이세진 이장은 유치원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솔선수범 나선다. 마을 입구 다리에 빼곡히 걸린 ‘산불조심’ 깃발을 아이들이 직접 그린 작품으로 바꾼 것도 그였다. 여름에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까 싶어 개울도 안전하게 정비했다. “우리 마을에 온 아이들이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주위에 꽃도 많고, 환경도 얼마나 좋아? 요 앞에 마을회관에는 이제 체험학습장도 만들 계획이에요. 도라지 꽃밭도 꾸며놓으면 애들이 좋아하겠지.”

### 즐겁게 놀며 배우는 아이들

총 2층으로 지어진 홍천남산유치원은 ‘ㄱ’자 형태로 중정에는 놀이터가 있다. 건물 1층은 접이문으로 만들어 야외 놀이터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했다. 널찍한 건물 안에는 6개의 교실과 블록 놀이터, 아틀리에(화실), 레고방, 도서실, 급식실, 보건실, 체육관, 교사들을 위한 학습자료실 등 여러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김명희 원장은 “원아 수가 늘어나더라도 교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 대비가 가능하다.” 라고 말했다. 현재 만3세반 1학급, 만4세반과 만5세반은 각각 2학급, 특수학급 1학급



등 총 6개 학급을 운영 중이며 원아 수는 총 102명이다. 홍천남산유치원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놀이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교실 뿐 아니라 복도 한 편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블록 쌓기, 그림 그리기 등의 공간으로 활용한 점이 돋보인다. 유치원 정문 입구에서 본 ‘즐겁게 놀며 배우는 행복한 홍천남산유치원’이란 문구가 떠올랐다.

아이들의 자유로운 놀이활동을 격려하는 김명희 원장은 “놀이의 힘을 믿는다.”라고 강조한다. “놀이를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창의성을 높일 뿐 아니라 최근 강조하는 프로젝트 수업, 주제 중심 수업이 모두 가능하죠. 이전에는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갔다면 이제 유아가 수업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사는 촉진자, 협조자 역할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제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닌 관찰이에요.”

관찰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은 이영희 원감이 덧붙였다. 그는 “안전을 위해, 또한 놀이를 촉진하거나 심화하기 위해 교사의 시선은 항상 아이들에게서 떨어지면 안 된다.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 교육 내용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관찰을 통해 아이의 성장에 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안심유치원’

홍천남산유치원은 올해 강원도교육청이 지정한 안심유치원으로, 안전한 교육시설과

45 강원도교육청 지정 안심유치원인 홍천남산유치원은 매월 1회 재난대피훈련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 등의 교육활동을 진행한다.  
678 2층으로 지어진 널찍한 건물 안은 학습과 놀이, 쉬이 가능한 여러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도서실, 학급교실, 중정 야외 놀이터

교육활동을 통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어가고 있다. 시설면으로는 지진방재모자, 화재 대피 훈련용 손수건, 안전도서, 안전교구를 준비했다. 매월 1회 재난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안전인형극 관람,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도 진행했다.

마을 주민들도 안전한 마을 환경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 유치원 앞에서 서행하기, 친환경 마을 가꾸기 등 마을과 유치원이 함께 정한 '길발들 안전약속'은 유치원 교실은 물론 마을 곳곳에 붙여졌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부터는 건강실무사를 배치해 아이들을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최미선 건강실무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응급처치, 손 씻기,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교육한다."라고 말했다. 급식실에서는 안전을 위해 연령별 시차배식이 진행된다. 자리에는 모두 가림막을 설치했고, 원아들은 각각 지정석에서 급식한다.

홍천남산유치원은 2학기부터 특색교육으로 전통문화 예술교육을 시작한다. 국악, 도예, 다도 등 아이들에게 생소한 우리 전통문화를 나이대별로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영희 원장은 "홍천군 지역 내 문화예술인을 강사로 모시고 아이들이 소고부터 시작해 장구 장단까지 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완화되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길을 다니며 풍물놀이 하는 것을 꿈꾼다."라고 전했다.

마을 주민들과의 협력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홍천군 노인일자리 전담센터 박홍순 센터장은 "이전에는 어르신들이 길거리 쓰레기 줍기 등 공익형 사업에만 투입됐는데, 유치원에서 일하면서 훨씬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신다. 앞으로 지역사회 어른으로서의 역할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소통해 일자리도 늘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②



Mini Interview

**김명희**  
홍천남산유치원  
원장



**Q1** \_\_\_\_\_ 유치원 운영 철학은?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난해 홍천남산유치원이 문을 열면서 강원도교육청 유아교육담당 장학관에서 원장으로 전직했다. 교육전문직으로 일하면서 정책을 고민하다 보니 현장과의 소통 중요성을 더욱 느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소통이 부족하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더라.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간 교원학습공동체 등 네트워크 구축을 독려하고, 외부적으로는 공립유치원 원장선생님들과 리더십을 주제로 동아리 모임을 주도하며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Q2** \_\_\_\_\_ 돌봄 운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오후 7시까지 온종일 돌봄이 가능한 인력과 체제가 갖춰져 있다.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규 교육과정이 끝나고 방과 후 과정이 5시까지 이뤄지며, 5~7시는 돌봄 시간이다. 방과 후에는 연령별로 다른 특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만3세들은 주로 수면시간으로 활용하고, 외부 강사를 초청해 음악, 레고, 체육 수업도 진행한다. 방과 후 과정을 비롯한 일체 교육과정은 전부 무상으로 이뤄져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

**Q3** \_\_\_\_\_ 유아교육 정책 관련 바라는 점은?

유치원의 의무교육화를 통해 학부모가 신뢰하면서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한다. 유치원 교사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업무량은 많은 데 반해 교사 1인당 원아 수가 많아 양질의 교육을 펼치기 힘들다. 학급당 원아 수 줄이기는 시급한 문제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만5세 학급당 원아 수 정원을 공립유치원 24명, 사립유치원은 28명으로 정하고 있다. 한 명의 교사가 이 많은 아이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는 힘들다.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더 잘 살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제대로 기를 수 있다.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여자축구 동아리

‘즐기는 축구’ 사회생활의 밑거름이 되거라~

최근 여성 연예인들이 축구를 배우는 예능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이 인기를 끌면서 남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축구, 그것도 여자축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남학생이 80%인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교장 장동원)에 여자축구부가 만들어진 것은 4년 전. 선수가 아닌 평범한 여고생이 축구동아리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공 쯤 차는 여고생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글\_ 이순이 편집장





123

매주 금요일 오후, 수도전기공고 풋살장은 여고생들의 공 차는 소리와 '파이팅'을 외치는 함성으로 시끌시끌하다. 축구공 하나로 선후배 간의 친목을 다지고 스트레스를 풀아온 여자축구부원들은 "우리의 목표는 축구를 즐기는 것"이라고 당당히 말한다.



2



3

**‘즐기는 축구’를 위해 모인 여고생들!**

“저를 포함해서 현아, 지호, 서영, 유진이 모두 기계과 동기들이예요. 저는 선배 따라 축구를 시작했고 친구들과 함께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 절친들을 포섭해 3년째 공을 차고 있어요. 하하하”

어떻게 여자축구부에 가입하게 됐냐는 질문에 송선빈(3학년) 학생이 경쾌하게 대답한다. “방송부에서 활동하다 선빈이에게 끌려왔다.”라는 이지호(3학년) 학생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 훈련이나 경기보다는 친구들과 후배들의 축구 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다. 웬만한 운동은 다 좋아한다는 이유진(3학년) 학생은 친구의 권유에 못 이기는 척 축구부에 합류했다. 공격수(스트라이커)로 활동하는 이유진 학생은 친구들로부터 ‘웬만한 남자선수들보다 실력이 좋다’고 인정받는 자타공인 수도전기공고 여자축구부 에이스다.

공 차는 재미에 흠뻑 빠진 학생들은 2019년엔 학교 스포츠클럽대회 지역 예선을 당당히 통과하여 서울시교육감배 본선에 진출하기도 했다. 3학년 학생들은 학교행사와 경기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경기를 뛰어보지 못하고 기권해야 했을 때 너무 아쉬웠다고 당시의 솔직한 감정도 전했다. 이유진 학생은

“당시 1학년이었지만 주전선수로 발탁이 되어 경기를 뛰는 내내 너무 신났다. 포지션이 공격수다 보니 패스를 받아 골로 마무리했을 때 그 기분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코로나19로 각종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잠정 중단된지 2년째. 학생들은 승부욕이 넘치던 시절, 대회를 준비하던 그때도 좋았지만, 후배들과 축구연습을 하고 경기를 뛰는 지금도 “축구를 즐기기에 딱 좋다.”라고 말한다. 특히 올해 학교에 풋살장이 신축되면서 여자축구부 전용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동아리활동이 있는 매주 금요일 6~7교시는 이곳 풋살장에서 축구공이 골대를 가르는 경쾌한 소리를 비롯해 ‘파이팅’을 외치는 여자축구부의 함성과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다.

**‘나도 운동 괜찮게 하네~’**

수도전기공고는 한때 엘리트 남자축구로 이름을 떨치던 학교였다. 2010년 한국 에너지 분야 영마이스터를 양성하는 마이스터고로 전환되면서 그 취지에 맞지 않아 엘리트 남자축구부는 해체되고 스포츠 동아리의 하나로 ‘남자축구부’가 유지되어왔다. 남학생이 80%인 학교에서 여자축구 동아리가 탄생한

건 4년 전이었다. 여자축구부를 만든 최영호 교감은 “남학생들은 갈등이 있다가도 상황이 끝나면 다시 친구로 지내는데, 여학생들은 오래 앙금이 남더라. 그래서 여학생만의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을 찾아 여자축구부를 만들게 됐다.”라고 설명한다.

여자축구부, 남자축구부 다 같은 축구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름 차별화 전략을 꾀하고 있다. 동아리 지도교사 2명을 배치, 김민환(남·체육과) 선생님은 훈련을, 최권화(여·진로과) 선생님은 운동하는 여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챙긴다. 김민환 교사는 “학교 졸업과 동시에 사회로 나가는 아이들이다. 입학해 적응하고 나면 자격증 준비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취업준비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은 편”이라며 “축구를 통해 선후배 간의 공감대를 만들어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연습을 마친 후에는 함께 간식을 먹거나 회식을 하기도 한다. 이런 화기에애한 분위기 탓에 여자축구부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올해 여자축구부가 입소문이 나면서 여자 신입생 38명 중 20명이 지원했다. 이 중에서 테스트와 면접을 거쳐 열정과 패기 넘치는 신입부원 9명을 선발했다.

현재 여자축구부에는 20여 명이 활동 중이다.

김아연(1학년) 학생은 “우리 반(20명)에 여자는 2명 뿐”이라며 “남학생이 많다 보니 남학생 주도로 이뤄지는 활동이 많고 성별에 따른 신체적인 차이도 있어 체육을 못한다고 생각했다. 여자끼리 축구를 하면서 ‘나도 운동 괜찮게 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말한다. 박소율(1학년) 학생은 “3학년 선배들과 함께 훈련하고 간식을 먹으며 취업에 대한 조언도 듣고 내신유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경험도 공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우리의 목표는 축구를 즐기는 것**

학창시절의 스포츠활동은 훗날 사회생활에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최영호 교감은 “우리 아이들은 18, 19살에 취업하는 데 반해, 대졸자들은 20대 후반에 사회에 나온다.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며 “스포츠활동은 직장생활을 할 때 동료들과 어울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공을 차며 선후배 간의 친목을 다지고 스트레스를 풀아온 여고생들. “우리의 목표는 축구를 즐기는 것”이라는 당당한 외침처럼 여러분의 멋진 사회생활도 응원합니다. ☺

배움과 돌봄의  
교육공동체를 향한

# ‘어쩌다 교장’이 전하는 혁신 이야기

박래광

서울  
영림중학교  
교장



서울 구로구 소재 영림중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된 지 올해로 7년째다. 2019년 2기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내부형 공모를 통해 새로 부임한 박래광 교장은 영림중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왔다. 교원과 직원을 포괄하는 학교 전체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학생들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 기울였다. 1년 4개월여 남은 임기 동안 마을결합 중점학교로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영림중학교에 다녀왔다.

글. 김혜진 객원기자

“공모 전, 학교경영 계획서를 준비할 때 첫 번째로 떠올린 문구가 ‘행복한 교직원’이었어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학생이지만, 이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과 돌봄’을 위해서는 학교를 지탱하고 있는 교사를 비롯한 구성원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더불어 교육의 동반자로서 학부모와 지역 사회와의 연계, 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이 제가 부임하면 수행해야 할 최우선 목표라고 생각했죠.”

박래광 교장은 2019년 3월, 내부형 B공모(교장 자격증이 없으나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를 통해 이곳 영림중학교에 부임했다. 2기 혁신학교로 지정된 이곳에서 박 교장은 ‘학교 관리자로서의 권위 내려놓기, 일하는 교장’ 등 또 다른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나갔다. 부임

이후 박 교장은 학교 관리자로서 겪는 다양한 사례와 고민을 꾸준히 블로그에 기록하고 있다. 아직은 흔치 않은 평교사 출신 교장의 사례를 공유하고 싶어서다. 30여 년 넘도록 평교사로만 학생들을 가르쳐왔던 터, 블로그 이름도 ‘고구마 샘의 어쩌다 교장’이다. 인터뷰 말미, “예닐곱 까까머리 유년 시절부터 머리 모양 덕분에 자주 불리던 별명”이라면서 ‘고구마 샘’에 얽힌 재밌는 작명 유래도 들을 수 있었다.

### 영림중에 일었던 변화의 바람들

부임 첫해, 1년 차 교장으로서는 경험한 기록들은 지난해 3월 EBS 1TV 다큐프라임 <무엇이 학교를 바꾸는가> ‘학교 변화의 열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방영됐다. 새내기 교장으로서 ‘교장사용설명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학교의 구성원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했다. 업무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구성원들과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두자는 취지였다. 또 교장실 책상의 명패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간소한 컴퓨터 출력물로 바뀌었다.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모 인터뷰 때, 학교 구성원 1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교장의 권위 내려놓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그때 명패를 언급했는데 진심을 오해하는 분들도 없진 않았죠. 부임해 온 이후에는 구성원들과 대화하고, 또 소통하면서 학교의 분위기를

1 박래광 교장이 운영하는 블로그 ‘고구마 샘의 어쩌다 교장’



좀 더 자율적으로 전환해 갈 수 있었죠.”  
 무엇보다 학생들과의 대화에도 더욱 귀 기울였다. 교장실 출입문 바로 옆 벽면에 자유게시판을 설치해 학생들이 언제든지 교장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학생들 스스로 도전과제와 목표를 수립하게 한 뒤, 그 목표치에 도달한 학생에게는 교장 선생님과 즐거운 자장면 시간이 마련됐다. 지난해부터는 ‘마을답사반’ 동아리 지도도 직접 맡고 있다. 박 교장은 “2년 차에 접어들면서는 코로나19 탓에 교내 활동에 많은 차질이 빚어졌다.” 라면서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역 준수와 함께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 학생들의 소식지 발간, 마을답사반 활동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성과도 있었다.”라고 귀띔했다.

**“교원학습공동체, 영림중의 자랑이죠”**

“토론, 발표, 융합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의 다양한 수업방식은 혁신학교에서 지향하는 수업 혁신의 일환이기도 해요. 이러한 수업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되었다는 평가결과도 실제로 있었고요.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이 시기,

2 박 교장이 직접 지도하는 ‘마을답사반’ 동아리  
 3 2기 혁신학교로 지정된 영림중에서 박 교장은 ‘학교 관리자로서의 권위 내려놓기, 일하는 교장’ 등 또 다른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21세기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학생들의 배움이 학교에서 마을로, 지역사회로 연결되고 더욱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박 교장이 영림중의 자랑으로 손꼽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1기 혁신학교 때부터 꾸준히 운영해 온 교원학습공동체의 ‘수업모임의 날’이다. 지난해까지는 학년별 교사그룹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원격수업 연구, 공감적 수업보기, 과정중심 평가 연구, 메이킹, 책에 질문을 던지다’ 등 여러 주제별 영역을 정해 각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수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에는 매주 월요일 교사 전원이 참여합니다. 대신에 선생님들의 수업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주당 수업시간이 1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강사 선생님을 배정하고 있지요.”

박 교장은 내년에 1학년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으로 매주 2차시의 주제선택 수업을 직접 맡아보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임기가 끝난 후 평교사로 복귀하기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기도 하다. 이 수업은 그동안 가르쳤던 지리 교과와도 관련 있는 ‘기후위기’를 주제로 검토 중이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전, 시범 운영학교 시절부터 관심을 두고 참여했었다는 박 교장은 “중간고사·기말고사에 얽매어 다양한 수업방식을 시도조차 해볼 수 없었던 시기에 이 자유학기(년)제 도입은 처음 내세운 진로선택의 취지보다 수업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혁명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옛 성현의 가르침, 화이부동의 지혜에서**

영림중은 요즘 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으로 탈바꿈하는 중이다. 학생식당은 지하에서 2층으로 옮겨졌다. 개교 이후 42년 된 낡은 신관 창호는 교체되고 엘리베이터도 새로 설치됐다. 박 교장의



간여임기 동안 역점사업은 도서관과 체육관이 있는 영림관 1층을 리모델링하여 지역개방형 마을 공유공간으로 만드는 것. “영림관은 3층에는 체육관, 2층에는 도서관이 함께 입주해 있는 건물입니다. 1층의 필로티 공간과 자주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멀티미디어실 등을 리모델링하여 도서실로 활용하는 등 공간을 재배치, 일과 이후에는 마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학교 담을 둘러싼 사무공간 빌딩은 물론, 재학생 학부모들도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접근성 높은 공공 교육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진척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곳 영림관 바로 옆에는 초가을의 오후를 보랏빛으로 물들이는 야생화 맥문동이 한창이었다. 그 앞에는 영림중 아이들의 재잘대는 소리, 발걸음 소리와 함께 참외가 익어가는 작은 텃밭이 있고,

그 바로 옆에는 이 마을에서 살아가는 자그마한 생명체들이 잠시 물 마시러 들르곤 한다는 작은 생태연못이 있었다. “혁신학교는 교육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곳입니다. 일반적인 교육제도나 환경이 ‘배움과 돌봄의 교육공동체’라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않아요. 혁신학교의 다양한 시도가 널리 확산하여 많은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면, 혁신학교는 따로 존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리더십은 일상생활, 삶에서의 모범과 지녀야 할 품성 등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다.’라고 믿는다는 박래광 교장. 제자들의 결혼식 주례에서도 종종 일러주곤 했었다는, 옛 성현의 가르침을 늘 되새기곤 한다. 서로 조화를 이루되, 의를 굽혀 좇지는 않는다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다. 2



# 누구나 할 수 있는 성평등 교육

글\_ 이해주 인천명현초등학교 교사

무거운 건  
누가 들어야 할까?

당연히 남자가  
들어야지!

여자 둘이서 들어도  
되는데...

성별을 떠나서 힘센 사람  
이 들면 돼.

정답이네!



gender equality

우리 학교 1층의 토마토 숲은 동료 선생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었다. 토마토 화분을 만들기 위해 생애 처음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해 보았다. 무거운 전동 드라이버에 비트를 척척 갈아 끼우고, 푹푹푹 완성해 낸 거대한 화분을 출퇴근 길에 볼 때마다 '내가 이걸 만들었다니!'라며 한껏 고양되었다. 그리고 화분을 보며 생각했다. '난 이제 뭐든 할 수 있어!'라고 말이다. 화분 만들기로 한껏 치솟은 나의 자신감의 이유는 화분의 크기가 거대했기 때문이 아니다. 태어나서 처음,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해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함으로써 내 손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추가된 것이다. 즉, 나는 '자립을 위한 능력치'를 함양했다. 그런데 나는 왜 여태까지 전동 드라이버를 잡아 볼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말이다.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전동 드라이버를 만질 수 있었던 사람은 정해져 있었다. 바로 아빠다. 어릴 때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만질 수 없었지만, 정말 그 이유가 다일까? 어린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다. 그래서 어른들은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려 노력한다. 그런데 우리 안의 무의식은 아이들의 경험을 성별에 따라 제한하기도 한다. 말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말이다.

### 우리 안의 무의식은 성별에 따라 행동을 제한한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있다. 수년간 미국 전역의 초등학교 교실 상황을 녹화하여 전문가들이 분석<sup>1</sup>한 결과, 스스로 평등을 지향한다고 자부하던 교사들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성공 경험을 제한하고 있었다. 즉, 차별할 의도가 없었던 교사들일지라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도움'과 '개입'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했다. 이 과정은 '쇼트 서킷(Short-Circuit)'이라 불린다. 성별에 따라 교사의 직접적인 행동이나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활동이 제한되는 것이다. 먼저 직접적인 행동의 예시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활동(전동 드라이버 사용하기, 기계와 관련된 일 등)을 수행할 때, 교사들은 여학생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내기 전에 끼어들어 '도움'을 준다. 남학생들도 마찬가지로,

<sup>1</sup> DAVID & MYRA SADKER, <Still Failing at Fairness- How gender bias cheats girls and boys in school and what we can do about it>

66

우리 안의 무의식은 아이들의 경험을 성별에 따라 제한하기도 한다. 말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말이다.

99

‘여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바느질, 청소하기, 정리하기 등을 할 때 쉽게 제지당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다.

피드백 또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주어졌는데, 연구에서 교사들은 남학생들에게 ‘자기 일을 스스로 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자세한 피드백을 해주었다. 하지만 여학생들에게는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보다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와 같은 말을 했다. 예를 들어, “비디오테이프를 어떻게 넣나요?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여학생에게는 설명 없이 바로 비디오를 넣어주지만, 남학생들에게는 이것을 기계에 어떻게 넣고 재생시키는지 알려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이 직접 해 보도록 기다려주고 성공했을 시 칭찬해주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부드러운 방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 ‘부드러운 방해’가 반복되면 어린이들은 도움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도전하려는 태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어린이들은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남자라서, 여자라서 못 하는 일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다.<sup>2</sup>

교사들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무엇이 성별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혹은 사회적 통념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성별에 따라 모습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만약 남학생 혼자 들 수 있는 무거운 물건이라면, 여학생 두 명이 들어볼 수 있다. 또, 바른 글씨나 바느질, 깨끗하게 치우고 유지하는 일은 성별과 상관 없다. 연습하면 된다. 학생들이 어떤 일을 못 하는 이유는 대개 경험의 공백으로 익숙하지 않아서이고, 그 결과 자립을 위한 기술들마저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된다. 그렇기에 교사들은 성별을 기준으로 기회나 경험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성취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방법을 바꿔볼 수 있다. 성별 고정관념을 답습하는 아이들의 행동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sup>2</sup> ‘기계적인 중립’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친절함을 버리라는 말도 아니다.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 구조적 맥락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UN은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 맥락을 살펴 ‘성 형평성(Gender Equity)’을 발휘하는 것이 주요한 방법이라 강조하고 있다.



### 성평등 교육을 위해 교실에서 꼭 지켜야 할 원칙

나는 ‘쇼트 서킷’과 ‘부드러운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반 학생들에게 이것만은 꼭 지켜주길 당부했다.

1.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기
2. ‘내가 할 수 있을까? 다른 아이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찌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해 보기
3. 성공은 기쁘게, 실패해도 ‘해 보길 잘했어’라고 생각하기.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 속에서 배울 점 확실하게 챙기기

많은 교사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 기본적인 원칙들을 강조한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자신감이 생겼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내가 만난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이 원칙을 습관화하는 데에 시간이 좀 걸렸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처한 사회적, 경험적 맥락을 생각해 본다면 이상한 일도 아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이중잣대를 학습했기 때문이다. 얌전하길 요구해서 행동을 참으면 ‘손이 많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막상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설친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이 간극 속에서 성장하는 일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과정이기도 하다.

한 제자는 졸업하며 이런 말을 했다.

“학교 다니면서 제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고, 이렇게 많이 도전해본 적도 처음이에요. 도전해서 다 성공하거나 그런 건 아니긴 했지만 계속해보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그런 말은 학교 다니면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해 봐야 아는 것 같아요. 좀 더 도전해보겠습니다.”

성평등 교육은 보통 ‘성평등한 교육’과 ‘성평등 의식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교육활동에 성차별적 요소나 성불평등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후자는 성평등한 사회재건에 필요한 의식과 가치관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이다. 성평등 교육의 특징은 교사의 성인지 감수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를 기본기로 가지고 있어야 성평등한 교육을 바탕으로 성평등 의식교육까지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해나감과 동시에 ‘성평등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요소들을 점검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함께 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우리 안의 무의식을 의식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성평등한 교육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 교사들의 이런 노력은 학생들에게 자립을 위한 기술과 역량들을 길러줄 수 있고, 이는 자신감 및 자존감으로 연결된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더욱 성평등한 미래를 선물할 수 있다. 성평등 교육은, 누구나 할 수 있다. <sup>2</sup>

- <sup>1</sup> 경계존중 교육이란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상대를 존중해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나의 경계가 침범되는 상황들을 살펴보고, 이 상황을 성평등하게 바꾸어보는 것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했다.
- <sup>2</sup> 우리 역사에는 수많은 여성 인물이 존재하지만, 그들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과 역사 속 여성 인물을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 공부는 평생 하는 거예요~

저출산의 여파로 학생 수가 지속해서 줄면서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숫자는 사상 처음으로 6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대학 신입생 총원율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평생교육, 평생학습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배가시키고 있다. 여기서는 모든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동네 평생학습관과 온라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교육부의 평생교육 정책 등을 소개한다.

21 모든 국민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나라

30 배움에 의지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평생교육!

26 우리 동네 평생학습관을 아십니까?

32 평생학습, 나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교육



## 모든 국민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나라

글\_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팬데믹 위기를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

진작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인구감소 → 폐교 → 지역 소멸의 악순환 구조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서 늦둥이 자녀를 전라남도 구례의 한 초등학교로 농촌 유학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라남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농산어촌 유학 참여자로 선정되어서 아이와 아내가 구례에서 한 학기를 지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초기 정착금과 매월 유학비도 지원해 준다고 했다. 아이는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1학기에 전라남도 10개 시군으로 유학을 떠난 서울 학생이 81명이었는데, 그중 57명은 2학기에다 시골 학교에 남기로 했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에 94명의 학생을 추가로 선정해서 모두 151명의 서울 학생을 전남 25개 초등학교와 12개 중학교에 유학을 보냈다. 시도교육청이 협약을 맺고 유학생을 보내고 받는 이유는 농산어촌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1980년대까지 1,000만 명대였던 학령인구는 1990년대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 들어 출생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낮아지면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2021년도 교육기본 통계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재학 중인 학령인구는 595만 7천여 명이다. 1990년 996만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0년 만에 무려 400만 명이 줄어든 것이다. 학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전 교생 수를 기준으로 면이나 도서벽지는 60명, 읍 지역 120명, 도시 지역 240명 이하인 초등학교의 폐교를 권고하고 있다. 이 기준을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120개 중 1,878개가 적정 학생 숫자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문을 닫은 학교도 이미 상당수이다. 전라남도 828개, 경상북도 729개 등 전국에서 3,832개 학교가 폐교했다.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 그 지역에는 30~40대가 살 수 없게 된다. 자녀 교육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인구감소가 폐교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의 소멸을 불러오고 있다.

아이와 젊은 층이 떠난 지역을 나이 많은 고령자가 지키고 있다. 5년 주기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11월 1일 기준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4%이다. 직전 조사 시점인 2015년보다 3.2%p 늘어났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23.7%), 경북(21.6%), 전북(21.3%), 강원(20.6%) 순이었는데, 이미 전라도와 경상북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많은 곳이 196개(85.6%)에 달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많은 것이다.

###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학생 감소에 대비하자

대학도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고 있다. 2019학년도 대입 때 57만 명이었던 고3 학생 수는 2020학년도 50만 명, 2021학년도 43만 7천여 명으로 격감했다. 2021학년도 대입 정원이 약 48만 명 수준이었으니 고3 숫자보다 입학 정원이 많았다. 그 결과 2021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4.9%였다. 2020학년도 98.9%보다 4%p 감소한 것이다. 전문대는 같은 기간 93.7%에서 84.4%로 무려 9.3%p나 떨어졌다. 낮아진 충원율로 지원만 하면 합격하는 대학의 모집 단위가 크게 늘었다. 지난 8월 24일 자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경쟁률 1대1 미만인 모집 단위가 2020학년도 55곳에서 2021학년도 321곳으로 늘었다. 2020학년도 정시에선 모집 단위 5,462곳 중 475곳(8.7%)이 지원자 전원에게 합격을 통보했지만, 2021학년도엔 5,411곳 중 1,103곳(20.1%)에 달했다. 정시 전형 모집 단위 5개 중 1개는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만 하면 합격했다는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로 각급학교의 위기 상황이 심각해지는 현상은 평생교육, 평생학습에 관한 관심을 배가시키고 있다. 특히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 학생 감소에 대비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평생교육은 서구 선진

국에서 1970년대 본격화된 정보화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제기된 바 있는데,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의 교육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정보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사회경제적 여파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초고속 무선 통신망이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고성능 컴퓨터 못지않은 기능을 하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다니고 있다. 무선 인터넷에 상시 접속된 휴대전화는 인간의 두뇌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거대정보를 처리하는 인공지능과도 연결되어 있다. 누구나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이 변화는 경제구조와 사회생활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지식과 기술의 향상과 변화 속도가 빨라져서 우리는 생애 초반부 15~20년 동안 학교교육단계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가령, 엔진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에 20대 초반에 취업한 근로자는 50대 초반에 이르러 회사가 더는 엔진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을 것이란 발표를 듣게 되었다. 학령기 때는 상상 속에서나 있었던 전기 자동차나 대체연료 자동차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제 직업생활에서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닌 당위가 되었다.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부상한 것은 당연하다.

### 장수혁명이 불러온 100세 인생과 평생학습 사회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우리 삶에서 더 실감이 나게 된 것은 이른바 장수혁명 때문이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의 도래는 우리 각자의 생애 자체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통상 우리의 인생은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출생으로부터 시작해 취업과 결혼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로 이

### 학교교육 중심에서 평생학습 중심으로 전환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 노년층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는 시기도 점점 늦어지고 있다. 누구나 인생 2모작, 3모작을 얘기한다. 모든 사람이 제2기 인생을 살며 제3기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1기 인생에서 교육받은 것만으로는 제2기 인생도 만족하며 살 수 없는 시대이다. 이제 시대는 학교교육 중심에서 평생학습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중심도 그에 걸맞게 변해야 한다.

이른바 교육의 시기이다. 제2기는 취업부터 퇴직까지 시기로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때이다. 즉, 취업의 시기이다. 제3기는 은퇴 이후 건강하게 생활하는 시기라면, 제4기는 건강이 나빠져 사망에 이를 때까지이다. 장수혁명으로 우리의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제3기 기간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1970년생이 62.3세였는데, 2019년생은 83.3세로 늘어났다. 50년 만에 20년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학계에서는 의료와 복지가 발전한 선진국에서는 2010년대 출생 인구의 절반 이상이 100세 이상까지 살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제3기 인생 기간의 증가는 교육-취업-은퇴라는 전형적인 생애경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변화는 생애 초반부에 집중되었던 교육이 생애 전반에 걸쳐 중요한 과업이 되는 것이다. 이 변화 과정에서 우리는 교육과 학습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생애 초반부에는 학교라는 강력한 교육제도의 도움을 얻어 학습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배우는 것은 학교에 다니는 것과 동의어로 여겨졌다. 그러나 학령기 이후에 배우는 것은 학교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원 등 학교 밖 평생교육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복지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등 전통적으로 교육과는 무관했던 사회 시설도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일터 학습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미디어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학습의 공간을 무한 확장하고 있다. 학습은 가르치는 이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콘텐츠에 기반해 학습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장수혁명이 불러온 100세 인생, 100세 사회는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하는 사회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제1기 인생에 해당하는 학령기 학생 중심의 학교교육에 온 힘을 써 왔다. 앞으로 국민 모두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정책을 빠르게 확충해 나가야 한다. 평생교육의 근본정신은 평생 학습권의 보장이다. 1997년 12월 13일 제정된 「교육기본법」은 제3조(학습권)에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습권은 유네스코가 1985년 3월 파리에서 연 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 채택한 것이다. 유네스코는 학습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읽고 쓸 수 있는 권리, 질문하고 분석할 수 있는 권리,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고 기록할 수 있는 권리, 모든 교육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집단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제시했다. 2021년 6월 8일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도모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목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평생학습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학교교육의 우선 목적은 모든 사람이 평생학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과 자세를 길러주는 것이다. 학습자의 삶을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이른바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 학교의 중요한 과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학생이 학습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학교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학습하는 것을 괴로워하다가, 학교를 졸업한 뒤 공부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국제학업성취도 비교 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두지만 학습의 동기 수준이나 행복감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모든 국민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6-3-3-4'로 알려진 학제에 대한 인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 6-3-3-4 학제는 학교 중심 교육제도의 상징이다. 그동안 학제를 변경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대개 영유아 단계 교육을 반영하자거나, 입학을 한 살 낮추자거나, 중고등학교의 재학 기간을 조정하자는 정도였다. 평생 학습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학제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학습의 결과를 사회적으로 관리하는 지원 제도로 학제를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6-3-3-4 학제가 아니라 '전생애학제'이다. 전생애학제 관점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는 학교를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가까운 일본과 대만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건물 일부를 지역 주민 전체의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 센다이시의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출입문과는 별도의 출입문을 내어 시민센터를 운영한다. 시민센터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강좌를 비롯해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만 타이페이시

자치구들은 방과 후에 중학교 교실을 지역 주민을 위한 사구대학(社區大學, Community College)으로 이용하고 있다. 대만의 농촌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교육부의 노년교육 프로그램인 낙령대학(樂齡大學)을 운영하기도 한다. 조손 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초등학교로 등교해 공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 시설을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할 것이다. 대학을 지역 성인들에게 더 개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 개인의 소득 수준이 평생학습 참여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는 예산이 필요하다. 학교교육 운영에는 연간 수십조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평생교육 예산은 그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그런데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에 있어서 소득 수준에 따른 참여 격차가 매우 크다. 2020년 기준으로 월소득 500만 원 이상 가구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45.4%인데 반해 150만 원 미만 가구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9.7%이다. 25~79세 국민의 평균 평생학습 참여율 40%와도 10%p 이상의 차이가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18년부터 저소득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제도를 국고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약 19,000명의 성인학습자에게 모두 63억여 원을 지원하였다. 1인당 35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우수한 학습자 3,000여 명에게는 35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소액이지만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해 난생처음 평생학습에 참여한 분들이 적지 않다. 2019년 바우처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 저소득층 이용자들은 월평균

2만 원 정도의 학습비를 추가 지출했다. 연간 35만 원이 마중물이 되어 평생학습에 기꺼이 자기 돈을 추가로 쓰는 학습자들이 생겨난 셈이다. 소액의 바우처로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즐거움을 끌어내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 생애 전반에 걸쳐 학습한 이력을 관리하는 '학습사회'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평생학습에 참여하게 되면, 학습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평생학습계좌(www.all.go.kr)는 국민의 학습 참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2009년에 도입되었다. 개개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학습한 이력을 잘 관리하고 그 활용도를 높인다면, 우리 사회를 학력사회에서 학습사회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인생 제1기에 받은 학교교육의 결과로 남은 삶 동안 우대 혹은 천대받는 것이 학력사회이다. 학력이나 학교교육이 중요하지만, 그 결과만으로 평생을 살 수는 없다. 평생에 걸친 학습 참여로 우리는 모두 각자의 능력과 자질을 지속해서 계발할 수 있다. 인생 제2기와 제3기에 평생학습에 참여한 결과를 사회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활용한다면, 우리 사회는 학벌 중심의 학력사회에서 벗어나 능력 중심의 학습사회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생학습계좌를 평생학습 참여 경비 지원 정책과 연계할 수도 있다. 국민이 태어나 출생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평생학습계좌를 개설하고, '평생학습 씨앗금'을 넣어 주어 평생에 걸친 학습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최근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방과후바우처 등 다양한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이 수당 중 상당수는 평생학습 참여와 관련된다. 부모 등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일정 비율은 아동 본인의 평생학습계좌에 넣어주고 학습 용도에 쓰도록 유도할 수 있다. 매년 학령인구의 약 1%가 학교를 이탈하고 있다. 이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습을 지속하도록 학습비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돈 때문에 학교 밖에서 원하는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한 방법이다. 고졸 취업자에게 특별히 지급할 수도 있다. 임신, 출산, 육아 단계의 여성에게도 중단된 경력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학습비를 적립해 줄 수 있다. 이직과 전직이 일반화된 시대에 경력 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계좌에 학습비를 누적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응원하는 보편적 학습비 지원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보편적 평생학습비 지원 정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법」 제8조에 규정된 학습휴가를 활성화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시간이 부족해서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연간 며칠 혹은 재직 기간 몇 년에 몇 달 방식으로 학습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를 활성화하면 평생학습 참여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비대면 온라인 소통으로 K-MOOC를 비롯해 수많은 온라인 콘텐츠를 학습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학습자도 늘어나고 있다. 팬데믹 위기를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 진작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고령화, 양극화, 지능정보화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복합 위기를 창의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힘은 학습하는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나라, 초일류 대한민국을 향한 지름길이다. ㉠

우리 동네 평생학습관을 아십니까?

# 배움의 즐거움 전파하는 평생 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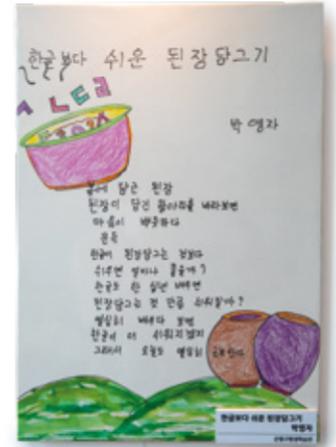
글\_이경화 명예기자

논어의 첫 장인 학이(學而)편의 첫 구절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이다. 사람은 누구나 배우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지점이 바로 평생교육의 출발점이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평생학습도시는 180개에 달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평생학습도시의 목표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 중심에 평생학습관(센터)이 있다. 각 지역의 평생학습관은 지역 특색에 따라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 사업과 평생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해교육도 책임지고 있다. 최근에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에 힘입어 시공간을 뛰어넘는 평생학습 플랫폼 운영을 비롯해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요구되는 비대면 학습 채널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은평구평생학습관**

**우리 동네 배움터**

은평구평생학습관은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87에 등지를 들고 있으며 지하철역(6호선 역촌역)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1층 로비는 수강생들로 발길이 끊이지 않은 지역의 명소였으나 지금은 조용한 편이다. 모든 수강생은 체온측정과 QR체크인 후 손소독까지 마쳐야 학습관 내부로 들어설 수 있다. 이곳에서는 현재 <숨은 고수교실>, <온&오프 우리 동네 배움터>, <은평시민대학>, 상명대학교와 함께 하는 <은·상 프로젝트>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늘배움학교>(문해교실)는 수업의 특성상 대면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월요일 오전에 진행된 중급 문해수업에서는 한글교육 외에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한창이었다. 사는 데 바빠 배움의 기회를 놓친 수강생들은 8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야 ‘배우는’ 재미를 알아가는 중이다. “힘내! 힘내! 짹짹, 쭈뼛! 쭈뼛! 짹짹” 구호와 함께 인사 나누기는 문해반 수강생들의 필수 코스다. 최미하 담당자는 “문해교육 수강생은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하기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스마트폰의 활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 한글교육 외에도 휴대폰 사용법



등 디지털기기 활용 커리큘럼을 추가해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78세인 설옥순 할머니는 “자꾸 배워도 까먹는데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연습하니 좋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수업을 못 한다.”라며 아쉬워했다. ‘누구나 가르치고, 누구나 배우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건 <숨은 고수교실>은 10년 넘게 이어져 온 은평구평생학습관의 대표 사업이다. 박지영 담당자는 “자기만의 재능이나 지혜를 가진 숨은 고수들을 발굴하는 것이 <숨은 고수교실>이라며 “학습관에서는 숨은 고수들이 지역에서 활동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비롯해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학습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학습관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숨은 고수들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언택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미디어룸도 조성하였다. 원지윤 사무국장은 “은평구의 평생학습 추진력은 시민성이 강한 지역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거주하는 정주인구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로서 마을 곳곳에 주민 주도 학습공간이 많은 것이 은평구만의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원 사무국장은 “지역의 평생학습은 지역활동가의 역동성에 달려 있다.”라며 “은평의 특성을 살려 시민활동가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활동가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학습관이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1 은평구평생학습관 문해교실 박영자 어르신인 시작품
- 2 은평구평생학습관 학습자들이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받고 있다.
- 3 은평구의 숨은 고수 홍승희 씨가 <그림책과 함께 하는 북아트>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동네배움터> 사업의 경우 주민 주도형으로 운영한다. 기획부터 프로그램 진행까지 주민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면 학습관에서는 이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해 보완점을 제시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도움을 줄 뿐이다. 원 사무국장은 “안정된 <동네배움터>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주민자치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형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산시평생학습관 <느낌표학교> 졸업식 사진



논산시 평생학습&주민자치 연계 워크숍 모습

최근 은평구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시도로 2030 디지털 노마드(인터넷과 최첨단 정보통신기기를 가지고 사무실이 따로 없이 새로운 가상조직을 만들어 살아가는 인간형) 숨은 고수를 발굴하는 한편, 온라인 학습콘텐츠를 만드는 활동가들을 위한 'ON배움크루' 사업 등을 강화하고 있다. 그밖에도 SNS 매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월 3일에는 2021 은평시민대학포럼 '디지털 학습공간의 진실: 휴먼터치(Human Touch)'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기도 했다.

오산시평생학습관

오산백년시민대학 프로젝트

교육도시의 가치를 내건 경기도 오산시의 평생학습은 <오산백년시민대학> 프로젝트 아래 운영되고 있다. <물음표학교>, <느낌표학교>, <하나로(路)통합학습연계망>, 교육포털 <오늘e>가 바로 세부 프로젝트다.

<물음표학교>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궁금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5명 이상이 희망강좌를 신청하면 전문성을 갖춘 강사가 찾아가는 '배달강좌 런앤런', 학습자나 시민강사가 강좌개설을 요청하면 플래너가 강좌를 기획하여 운영하는 '학습살롱' 등이 지역 곳곳에서 운영된다.

<느낌표학교>는 50세 이상 시니어 리더를 양성하는 2년제 교육과정으로 첫해에는 지역 리더로 활동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민주시민역량 및 인문사회 등 소양 교육과정, 2년째에는 분야별(지역발전튜터학과, 지역발전퍼실리테이터학과, 사회적경제플랜학과)로 전문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2년의 과정을 마친 후에는 지역활동가, 지역 강사, 퍼실리테이터 등으로 활동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교육포털 <오늘e>는 학습플랫폼으로 독창성을 인정받아 특허청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런앤런, 학습살롱)를 획득했으며, 생활밀착형 학습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하나로(路)통합학습연계망>은 지난해 신규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받기도 했다.

오산시 이선영 주무관은 "6개 주민자치센터의 경계를 허물고 전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성화 캠퍼스로 지정·운영하고 이를 촘촘히 연결하는 235개 징검다리교실에서 배달강좌, 학습살롱, 학습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라며 "지난해 기준 오산시민 49,874명이 총 7,400회 16,326시간 동안 징검다리교실을 활용한 것으로 집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더:청년학교', 비문해 교육 프로그램인 '백년한글학교'를 운영 중이며 장애인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산시는 2016년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며 세계 유수의 평생학습도시와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주제로 웹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논산평생학습관

시민 대상의 동고동락 평생학습이용권

충남 논산시는 2015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지역 내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논산 평생학습의 핵심은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동고동락 평생학습이용권'은 논산시민이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 기관에서 수강료를 결제할 때 쓸 수 있는 선불카드형 이용권이다. 이는 지역민들에게 평생학습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논산시민아카데미>는 다양한 인문학, 교양강좌를 유지해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논산시민대학>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청에 부합해 커리큘럼을 구성해 왔다. 2020년에는 민주주의의 현대적 흐름,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린리더, 미래교육 등 4개 과정으로 이루어져 진행되었다. 40학점을 이수하면 충남도와 논산시가 인정하는 시민학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도 <민주시민학교>, <지역학>(충남학, 논산학, 충청유학) 프로그램 운영, <꽃중년 숨은 인생 찾기> 등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꽃중년 숨은 인생 찾기>는 45세에서 65세 사이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은퇴설계전문가들이 재무, 건강, 경력설계, 소통&시간관리 등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논산시는 접근성이 편리한 경로당을 중심으로 평생학습 공동체를 주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지난해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논산시 권지영 주무관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에는 <시민아카데미>를 온라인 형식으로 전환해 진행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 배움에 의지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평생교육!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평생교육 부문에서도 비대면이 일상화되며 온라인 교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특성상 비대면 환경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2020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 의하면 3040세대 등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평생교육 참여율이 증가했다. 영역별로는 직업능력향상교육,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순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지만, 어떤 이는 일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어떤 이는 건강관리와 교양향양 등 자기계발을 위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각자 목적은 다르지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움에 의지가 있다면 평생학습을 통해 제2, 제3의 인생 설계는 물론,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만날 수 있는 평생학습 콘텐츠를 소개한다.

글\_ 편집실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배움의 기회를 갖고 싶은데 시간과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http://www.lifelongedu.go.kr>)을 이용해보자. '늘배움'에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육콘텐츠와 평생학습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서비스를 종합하여 제공한다.

먼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과 상실감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상담 등을 제공하는 '마음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 외에도 인문학, 외국어, 가족/건강, 정보/컴퓨터, 자격증, 취/창업, 문화/교양 등의 다양한 온라인 강좌가 준비되어 있다. 경기도 지식(GSEEK)은 8개 분야(테마, 의과과정, 외국어, IT, 자기계발, 생활/취미, 인문 교양, 자격취득)를 다루는 1,500여 개의 온라인 강좌를 제공한다. 특히 경기도는 청소년층을 위해 진로·직업, IT, 인문·교양, 문화·예술 등 433개의 교육용 영상콘텐츠와 교사 수업용 교재를 제공하는 등 초·중·고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현재 17개 시도에서 양질의 평생학습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우리 동네 평생학습포털을 꼭 확인하자. '늘배움'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하며, 평생학습계좌와 연동하여 학습 이력 관리를 원한다면 회원가입은 필수.



### 산업 맞춤 단기 직무인증과정 '매치업'

매치업(Match업)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 등을 위한 산업 맞춤 단기 직무인증과정이다. 매치업(<https://www.matchup.kr>)에서 제공하는 교육강좌(스마트시티, 지능형자동차, 스마트팜, 신에너지자동차 등)를 이수하고 인증평가를 통과하면 해당 분야 대표기업이 직무능력을 인증하는 방식이다. 인증서는 학습자의 교육훈련 이력 관리와 관련 분야 취업에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분야의 경우, 대표기업으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네이버가, 교육기관으로 단국대가 참여하여 스마트시티 핵심영역인 리빙랩, 거버넌스, AI서비스 등의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지능형자동차 분야는 현대자동차(대표기업)와 현대엔지비(교육기관)가 참여하며 자율주행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인 '인지, 판단, 제어, 통신 및 네트워크'의 총 4가지 핵심직무와 세부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스마트팜 분야는 팜한농·LG CNC(대표기업)와 연암대학교(교육기관)가 참여하여 유리온실 및 플라스틱 온실에서 수박, 딸기, 참외 등의 작물 재배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수강한 후에는 평가를 통해 스마트팜 전문가 인증을 제공한다. 해당 산업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매치업을 꼭 클릭해 보자.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K-MOOC(<http://www.kmooc.kr>)는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원하는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로 2015년 27개 강좌로 시작해 지금은 140개 이상의 대학, 공공기관, 해외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1,000개 이상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웹 기반으로 운영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관심 분야의 개별 강좌를 쉽게 찾아 들을 수 있으며, 지난 강의를 청강할 수도 있다.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원할 경우, '묵음강좌'를 통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인공지능에 관심 있다면,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묵음강좌 <인간과 인공지능>을 들여다보자. 인간세계와 인공지능의 관계,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의미, 인문학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 69주차 분량의 강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에 관심 있다면, 성균관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묵음강좌 <4차 산업혁명과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창업>을 눈여겨보자. 4차 산업의 의의와 특징을 비롯해 시대적 환경을 이해하고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실전 지식을 배울 수 있다.

K-MOOC의 가장 큰 장점은 수준 높은 대학강의를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질 높은 강의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온라인 강의를 그러하듯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교육콘텐츠가 넘쳐나는 세상을 살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아닐까 싶다. ㉔

## 평생학습, 나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교육

글\_남윤철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

### 평생학습 정책의 중요성

평생학습 시대다. 작년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느끼는 직장인의 비율이 95%나 되고, 강박감을 느끼는 비율은 36%나 된다고 한다(잡코리아, 2020).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대전환, 메타버스 등 신기술 혁명이 낳은 어려운 단어들과 연일 쏟아지는 취업과 퇴직 관련 뉴스의 바닷속에서 우리나라 성인들은 자기계발 또는 평생학습이라는 구명보트를 찾아 오늘도 헤매고 있다. 학교교육은 더 이상 평생직장을 담보해주지 못하고, 몇 년 전에 쓰인 교과서는 당장 내일 발표될 신기술을 따라잡지 못한다. 이는 평생학습이 국민 한 개인에게 절실하게 피부로 와 닿게 된 배경이자, 국가가 학교교육만큼 혹은 그 이상 평생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평생학습이 생존의 문제로서만 주목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도 늘 학습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 인문 소양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교양을 쌓고, 건강한 체육활동과 여가 속에 학습이 함께한다.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데도 그 바탕에 학습이 있다. 즉,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평생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 우리나라의 25세 이상 인구는 전 국민의 80% 이상이다. 이는 학교 담당 너머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에는 25세 이상 인구가 국민 10명 중 4명, 초중고(6~17세) 학생 인구가 국민 10명 중 3명이었는데, 2025년에는 2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배가 늘었고, 초중고 학생 인구 비율은 1/3이 된다. 그리고 이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평생학습 정책은 국가의 핵심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의 인적자원역량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 소득·지식·기술·지역·학력 등의 여러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 그리고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정책 등 평생학습 정책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 ▶ 평생학습 정책의 다양한 효과

- 경제·일자리 효과(인적자원의 생산성 지속 제고)
- 개인 행복감 증폭 효과(학습을 통한 가치실현·만족감)
- 사회통합 효과(학습에 의한 양극화 해소)
- 지역사회 활력 제고 효과(지역 내 학습문화 형성)
- 민주시민 육성 효과(자발적 시민모임, 시민교육) 등

### 교육부의 평생학습 정책 비전과 방향

교육부는 “학교교육 이후에도 국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지속해서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 국민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정책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소득·지역·학력 격차 등이 평생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평생학습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평생학습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대별·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 신기술 분야에서 인문 소양 함양을 위한 강의까지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 평생학습권을 전 국민의 권리로

교육부는 지난 6월 「평생교육법」을 개정하면서(21.12.9. 시행),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명문화하였다. 아울러 그 목적도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으로 하였다.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국민 개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1조  
‘...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부는 ‘모든의 평생학습’을 위해 소득 격차가 평생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평생교육바우처’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평생교육 소외계층 성인에게 제공한다. 1인당 연간 최대 70만 원을 지원한다(35만 원 지원 + 우수이용자에게 35만 원 추가 지원). 바우처를 발급받은 국민은 현재 전국의 약 1,700개소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기관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또한, 문해교육을 통해 저학력자 등이 새로운 배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생학습은 고학력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문해교육이야말로 평생학습 정책이 가지는 감동의 가치를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낸다. 교육부는 세계 문해의 날



평생학습 시대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학교교육 이후에도 세대별·생애주기별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자료사진=코로나19 이전에 촬영한 사진임)

(International Literacy Day, 9월 8일)이 속해 있는 매년 9월을 ‘대한민국 문해의 달’로 정하고,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등을 개최하여, 평생학습이 일궈낸 성장의 감동을 국민 모두와 공유하고 있다 (21.9.8.~12.31. 온라인 전시, <http://www.le.or.kr>).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일으킨 디지털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 평생학습도 온라인 학습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통해, 대학의 우수한 강좌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한 K-MOOC는 어느덧 회원 수 약 89만 명, 강좌 수 약 1,000여 개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강좌 등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습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평생학습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인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구축을 시작하여 2023년까지 완료하고, 2024년부터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대학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학습 생태계**

평생학습 정책은 지역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평생학습 정책을 통해 지역을 살기 좋고 매력 있는 곳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더욱 많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교육부는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자체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2001년부터 전국의 기초지자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여(현재 누적 180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돕고 있다.

대학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정책도 늘려가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이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과정,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대학 환경 조성을 돕고 있다. 현재 총 30개교(일반대 23, 전문대 7), 113개 학과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약 4천 명의 신입생이 입학했다.

**신기술 분야에서 철학·인문 강의까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신에너지자동차 등 신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재직자 등의 학습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매치업(Match業,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과정을 대학과 기업이 함께 개발하여 취업준비자나 재직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물류, 스마트팜, 신에너지자동차, 가상·증강현실 등 분야 과정을 운영 중이며, 약 4만 3천 명의 학습자가 이용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77개 기업이 매치업을 활용 중이다.

교육부는 올해 8월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인문·사회·과학 등 각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석학들을 강연자로 하는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프로그램을 K-MOOC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전 국민 인문소양 함양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이다. 이 프로그램은 EBS와 협력하여 방송으로 제작·편성하여 송출하고 있다.

9월 중반부터 올해 말까지는 10대부터 60대까지 우리나라 세대별 관심사를 주제로 ‘차이나는 클라

스-인생수업’ 프로그램을 K-MOOC를 통해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물들이 출연하여, 여러 주제로 특집 강연을 펼친다. 이 프로그램은 JTBC와 협력하여 추진 중이다.

**평생학습을 발판으로 도약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은 평생학습을 통해 ‘학습이 있는 삶’으로 도약한다. 학습이 함께하는 삶은 어떤 측면에서든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국가가 평생학습을 핵심 미래정책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유이다. ⑦

**EVENT**  
**꼭꼭 숨어라!**

“교육부는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자체와 함께 성장하는 ○○○○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아시는 분은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 접속하거나 좌측 QR코드를 스캔하신 후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매치업 운영분야별 대표기업 및 교육기관 현황**

연도	2018년(3개 분야) *2021년 상반기까지 운영			2019년(3개 분야)			2020년 (2개 분야)		2021년(4개 분야)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물류	스마트팜	신에너지자동차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지능형자동차	드론	가상·증강현실	빅데이터	대체에너지	
대표기업	kt	exam	하림	삼한농	HYUNDAI	SK	Microsoft	HYUNDAI	LIG넥스원	unity	data	한국과학기술원	
교육기관	전남대 등(3개)	코리아헤럴드 등(5개)	멀티캠퍼스 등(4개)	연암대	현대엔지비	한양대	단국대	현대엔지비	동서울대학교	남서울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 석학 40명 출연
- K-MOOC와 EBS로 송출
- EBS 1TV 23:35~23:55분

- ▶ 유발 하라리 <21세기, 인류의 도전과 미래>
- ▶ 재러드 다이아몬드 <총, 군, 쇠, 그리고 선택>
- ▶ 마이클 샌델 <능력주의는 정의로운가>
- ▶ 리처드 도킨스 <진화의 과학>
- ▶ 폴 크루그먼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 예측>
- ▶ 조지프 나이 <누가 진정한 리더인가?>
- ▶ 유슈아 벤지오 <AI가 바꾸는 미래> 등

**차이나는 클래스-인생수업**



- ▶ 개요: 1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별 관심사를 주제로 진행되는 생활밀착형 특집 강연
- ▶ 방송일시: '21.9.19~12.26. JTBC 매주 일요일 저녁 18시 40분
- ▶ 출연진: 에릭오(애니메이션감독), 리아킴(케이팝 안무가), 이광형(카이스트 총장), 정재승(뇌과학자),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유현준(홍익대 교수), 오은영(정신과 의사), 강원국(작가), 유홍준(前문화재청장), 최재천(이화여대 교수) 등

# 사립학교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결 8.31.

## 01.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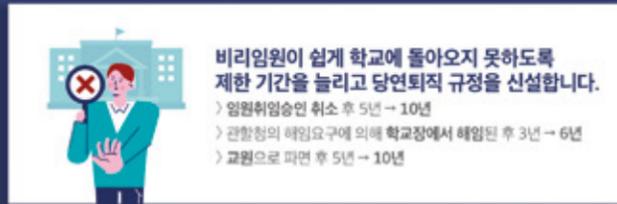
Q. 개정법률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 채용과정의 공공성을 높여 사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신규채용 사립학교의 63.2%가 시도교육청 1차 필기시험 위탁을 통해 채용('20년)  
 • 초·중등 사립학교 세입자 12.3조 원 중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8.6조 원('19년 결산)

Q.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A. 여러 단계 채용절차 중 객관적 영역인 1차 필기시험 합격자(해당 법안 지원자 중에서 통상 5배수 선발)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등을 통해 사학의 건학이념에 맞는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신규채용 절차 중 필기시험에 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위탁 예외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사학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개정안입니다.

## 02.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을 강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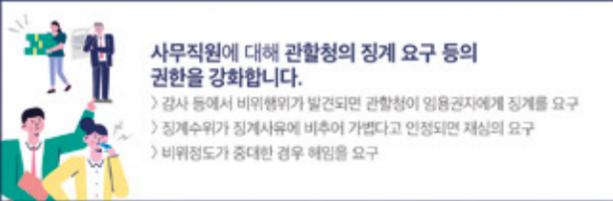
Q.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아닌가요?

A. 그동안에는 비리 임원이 임원취임승인취소가 되더라도 3~5년이 지나면 학교에 복귀하여 다시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임원이 학교에 쉽게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원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사학 운영을 도모합니다.

Q. 임원의 당연퇴직 근거를 왜 마련해야 하나요?

A.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에도 당연퇴직 규정은 없어, 재직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임원직 유지가 가능한 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서도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규정이 모두 있습니다.

## 03. 사무직원의 비리 행위에 대해 관할청의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Q. 사적고용관계에 있는 사무직원에게까지 관할청이 징계 요구 등을 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A. 감사 등을 통해 관할청이 사무직원의 중대비리를 확인하더라도 징계 요구조차 할 수 없고, 징계 여부와 그 수위가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Q. 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교원·직원의 징계재심을 하는 것은 사학의 징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A. 교육청 감사·조정 등을 통해 적발된 비위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징계심의위원회에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에서 제외되는 등 관할청과 독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용권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 04.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합니다.



Q. 학교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A. 학교의 예산안 편성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에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사회 권한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사립학교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글\_ 최지웅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서기관  
 박민지 교육부 학교정책과 사무관  
 장혜은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사무관

## 8.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의결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중 사립고등학교는 41.9%이며, 고등교육기관은 사립이 전체의 86.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19년을 기준으로 사립 초·중등학교에 대해 재정결함보조금, 목적사업비 등을 통해 운영비·인건비 등으로 연간 8.8조 원을, 사립대학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지원받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각종 정부재정지원 사업으로 연간 7조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사학은 우리나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학의 부정·비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 8월 31일,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01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초·중등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교육청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된다.

학생들과 교육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는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채용과정에서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 법률조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2022년 3월 25일 예정)되고, 시행일 이후에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 사학의 인사권을 침해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교육감 위탁 채용은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하여 이미 많은 사학에서 참여('20년 기준 63.2%)하고 있다.

또한, 여러 단계의 채용 절차 중 객관적 영역인 1차 필기시험으로 교육감 위탁의 범위를

한정하였고, 해당 사학으로 응시한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등을 통해 사학의 건학 이념에 맞는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학 운영의 자유와 사립 교원 채용의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청 위탁 예외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수 사학이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외부위원 위촉 등 포함)하는 전북 교육청의 사례나 재정결합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립형 사립학교 등에 대하여 위탁 예외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행일 전까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02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심의의 공정성과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번 개정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이 중 외부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한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더욱 공정한 징계 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통보하게 된다. 이 경우, 사립 초·중·고의 관할청은 소속 시도교육청이다.

아울러, 사립학교와 법인 사무직원의 비리 행위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

관할청이 사무직원의 중대 비리를 확인하더라도 징계 요구조차 할 수 없었고, 징계 여부와 그 수위가 임용권자

자의적으로 결정되어왔던 점을 개선하여 감사나 조사를 통해 사무직원의 비위행위가 발견되면 관할청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징계 수위가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재심의 요구도 가능하다.

## 03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사립학교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므로 학교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임원의 책무성 확보가 절대적이다.

그동안 비리 임원이 임원취임승인취소가 되더라도 3~5년의 결격 기간이 지나면 학교에 복귀하여 다시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비리 임원의 복귀를 반대하면서 학교 정상화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또한,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교원·직원과 달리 임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이 없어 결격이 발생하더라도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원의 결격 및 선임제한 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늘리고 당연퇴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비리 임원이 쉽게 학교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임원 재직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 되도록 개선하였다.

## 04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사학비리 중 인사·채용 비리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특히, 임원과 친족인 교직원에게 의한 비리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서도 채용절차 준수 등 공정채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사·채용 비리를 방지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또한,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원·직원·재학생 위원을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적립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데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사회를 소집할 때 학교 구성원들도 장소·일자 등을 알 수 있도록 공지하는 등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다.

아울러,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권한이 확대되어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예산안과 결산을 '자문'하는 기구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하도록 학교운영회의 성격이 변하게 된다. 이는 2022년 3월 새 학기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 이사회의 권한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학교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에도 이사회의 심사와 의결로 확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사회 권한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4가지 사립학교법 개정사항 이외에도, 각기 다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조항별로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②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 사립학교법 전체 내용 요약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기존 7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고, 교원·직원·재학생인 위원을 각각 2명 이상 포함
-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시 시도교육청에 필기시험 위탁 실시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초·중등), 당연퇴직 사유를 지방공무원법 준용
-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5~11명으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되 학부모위원 1명 이상 포함, 위원 성별비율 규정 등
- 관할청에 초·중등 사립교직원 징계 재심을 위한 징계심의위원회 설치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
-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불응' 추가
- 임원의 결격 및 선임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결격사유 해당 시 당연퇴직하는 근거 마련
-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 사무직원에게 관할청이 징계 등을 요구
-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 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
- 사립학교 경영자·교직원 등의 청렴의무 규정,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관할청의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규정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사항인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사항으로 개정

# 어린이 TAAS로 우리동네 위험지역 찾아볼까?



대구광역시교육청  
기초·기본학력 향상 지원체제

# 한 아이도 놓침 없이 '학력 탄탄' 맞춤 지원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보다 눈에 띄게 증가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일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지면서 학습결손과 학력격차가 심화된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을 향상하기 위해 학교·교육청·유관기관이 협력해 안전지원망을 구축하고, 보조강사를 통한 1:1 밀착지원을 강화했다. 2021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대구시교육청의 '기초·기본학력 향상 지원체제'에 대해 소개한다.

글\_ 양지선 기자



올해 구지중학교(교장 박미숙)에 발령된 박원하 수학교사는 전임교에서부터 꾸준히 1수업 2교사제를 운영해왔다. 1수업 2교사제란 교사와 학습지원강사가 협력수업을 함으로써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제도다.

박원하 교사는 학습지원강사에게 각 반에서 집중 개별 지도할 학생 2~3명을 미리 안내하고, 도움이 필요하거나 소극적인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문제풀이 시간에는 강사와 모듈별로 전담해 지도하고, 학생들이 많이 틀리거나 개념을 강조해야 할 부분은 공유하도록 했다.

박 교사는 "1수업 2교사제를 경험한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보충 지도가 되고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성적이 좋은 학생들도 수업 분위기가 개선되고 전반적인 수업 참여도가 향상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라고 전했다.

지난 2018년 2학기부터 1수업 2교사제를 운영해온 대구시교육청은 운영 학교와 학습지원강사 수, 관련 예산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올해 초등에서는 161개교 300명, 중등에서는 79개교 125명의 학습보조강사를 지원했다. 이전에는 수학 교과에 한해 지원했다면 올해는 정보, 컴퓨터 과목에서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온라인 튜터, 대학생 멘토, 두뇌기반 학습코칭단 등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원체제를 다양하게 구성했다. 올해 대구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위한 온·오프라인 면대면 보충 인력으로 1,300명을 지원했고, 이는 전년 대비 2배 확대된 수치다.

## 1수업 2교사제 등 1:1 보충인력 2배 확대

대구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초·기본학력 저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포산중학교(교장 성희경) 김현경 수학교사는 대구시교육청이 도입한 '칸아카데미'로 맞춤형 학습 효과를 톡톡히 봤다. 칸아카데미는 수학·과학·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분야에서 8만여 개의 교육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이다. 학생들의 학습 시간과 학습 내용, 이해도 변화, 학습결손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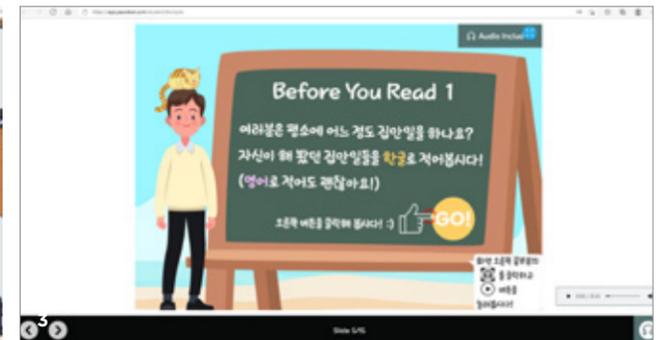
김현경 교사는 대구시교육청을 통해 칸아카데미 관련 연수를 받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교육과정에 맞는 문제들을 학생들에게 배당하면, 학생들은 다양한 문제를 풀며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하고 복습했다. 배움이 느린 학생들에게는 1수업 2교사제를 활용해 개인별 지도가 이뤄지도록 도왔다. 김 교사는 "이전에는 수업 시간에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학생들이 있었다. 어렵고 안 풀리는 문제 때문에 수학을 재미없는 과목이라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칸아카데미는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해 진도를 조절하고 성공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학에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라고 말했다.

## 가상 온라인 학교로 방학 중에도 끊임 없는 배움

대구 교사들이 만든 온라인 학습사이트 '학교가자닷컴'에서는 학생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방학 중에도 배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메타버스를 활용한 학습 공간을 마련했다. 온라인 가상 학교에서 학생들은 교사가 직접 제작한 교과별 콘텐츠를 학습하고, Q&A 게시판을 통해 질의응답을 하며, 친구들과 협동학습도 진행했다. 학습에 필요한 전자책도 대출할 수 있게 했다. 실제 학교를 그대로 온라인 세상으로 옮겨온 것과 다름없었다. 대구시교육청은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동시 접속해 학습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을 지원했다.

중등 학교가자닷컴 운영을 총괄하는 영남공업고등학교(교장 김봉준) 이제창 교사는

- 1 박원하 구지중 수학교사는 1수업 2교사제를 통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
- 2 '학교가자닷컴'은 방학 중에도 배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메타버스를 활용한 학습 공간을 마련했다. 온라인 가상 학교에서 학생들은 교사가 직접 제작한 교과별 콘텐츠를 학습한다.



“중하위권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부족해 상위권 학생들과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온라인상에 교육콘텐츠만 올려놨다면 학습 동기가 생기지 않았을 거다. 메타버스를 이용해 호기심을 유발하고 그 안에 보물찾기, 퀴즈대회 등의 흥미 요소를 더해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교과목 수준별 수업모델 개발**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학력 저하 예방을 위해 인력지원, 에듀테크 프로그램 도입 강화, 교실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철저한 방역 속에서 관내 모든 학교의 등교수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기초·기본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지원체제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와 관심도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임채희 대구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어려운 점으로 꼽는 부분이 학부모가 학교보다 학원에 더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보충학습이 이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누락되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연말까지 기초·기본학력 미달 학생들을 위해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주요 교과목의 수준별 수업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임채희 장학사는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은 방과 후에 남아 보충수업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정규수업 내에서 더 개별화된 피드백과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㉓

[표1] 대구시교육청의 중등 기초·기본학력 구분

구분	기초학력	기본학력
정의	3R(읽기, 쓰기, 셈하기) 등 관련 교과목의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	학생 성장 중심의 교과 역량을 기르는 데 필요한 핵심 개념과 원리(교과 성취기준) 등을 이해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학력
지도 대상	• 기초학습부진(읽기, 쓰기, 셈하기) 학생 • 교과(국어, 수학, 영어) 학습부진 학생	• 국가수준의 교과별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학생 • 학급 내 모든 학생

[표2] 대구시교육청의 중등 1수업 2교사제 운영 현황

구분	2018(2학기)	2019	2020	2021
운영과목	수학	수학, 영어	수학	수학
운영 학교 수	20교	44교	66교	79교
학습지원 강사 수	24명	61명	101명	125명
예산(단위: 천원)	145,100	861,900	1,150,300	1,231,705
특이사항		영어(1명)	원격수업 지원	등교, 원격수업 지원



FOCUS 01

## 교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지금 당신에게 편지합니다'

성완 명예기자



지난 8월 25일 교육과 학사에서 <지금 당신에게 편지합니다>라는 책이 출판되었다. 이 책은 경남교육청에서 '자기고백 편지쓰기' 공모전을 거쳐 선정된 편지를 모아 제작한 책이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담당자인 오영범 교육연구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 경남 교직원들이 모여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는데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나?**

A : 사람 간의 자유로운 만남까지 차단한 코로나19가 소중함 정(精)마저 빼앗아 갈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라는 말처럼 말이다. 업무와 관련된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고 고민한 결과, 편지에 마음이 움직였다. 만남의 단절로 인한 그리운 정을 편지가 이어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 고백이 담긴 편지쓰기 공모' 사업이 탄생하게 됐다. 먼저 도교육청에서 지난 4~5월 실시한 '편지쓰기 공모 사업'을 전 교직원들에게 안내했다. 두 달 동안 편지는 모두 82편이 접수되었고, 그 중 최종 40편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40명의 교직원 중에서 3명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세 분의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제목, 차례, 편집 형식, 그리고 표지 디자인까지 모든 사람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책을

만들어 출판할 수 있었다.

**Q : 책 내용과 구성을 간단히 소개해 달라.**

A : 책에는 40인의 소중한 편지로 구성되어 있고, 각 편지는 저마다의 애뜻한 사연을 담고 있다. 책의 구성은 '가족, 사랑의 온도', '엄마의 자리', '아버지께 가는 길', '오늘도 아름다운 나', '학교에서 맺은 인연' 이렇게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의 제목만으로도 그 리운 사람, 사랑하는 이, 그리고 지금까지 힘겨운 삶을 살아온 자신에게 말하지 못했던 사연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 각자의 사연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자기 고백이 담긴 간절한 마음으로 쓴 편지들이다.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Q :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살아내고 있다. 갑자기 닥쳐온 감염병의 위기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렸고, 소통과 만남을 위한 작은 시간조차 쉽게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친구들과 마음껏 어울리며 함께 성장해야 할 아이들도 마스크로 입을 가린 채 언제나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더욱 필요하다. 관심과 사랑의 표현을 편지로 전해보면 어떨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밝힐 것이다. 경남교육청에서 출판한 <지금 당신에게 편지합니다>의 따뜻한 기운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 FOCUS 02

## 자가격리하는 우리 반, 이 순간도 지나가리라! 함께 이겨내자!

홍지희 명예기자

2021년 9월 9일 **목요일 오전**, 출근하자마자 학교가 갑자기 발칵 뒤집어졌다. 바로 전날, 인근의 태권도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목요일 출근 직후, 바로 그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누구인지 확인을 하였고, 가족 중에 그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누구인지도 확인하였다. 1~6학년 관련 학생들 모두는 곧바로 학교하여 학교 근처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였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확진자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놀란 우리 반 학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 모두 학교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켰으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우리 교실에는 손소독제 7개가 군데군데 배치되어있다. 본인의 자리에서 너무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손쉽게 손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창문은 환기를 위해 늘 열려있고, 건물 안이든 밖이든 수업 중에도 쉬는 시간에도 언제나 마스크를 썼으며, 체온측정은 등교할 때와 점심식사 전에 실시하였다.

**금요일 오전** 출근길이었던 아침 7시 37분, 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받았다. 우리 학교에 2명의 확진자가 확인된 것이다. 그중 한 명은 우리 반 아이였다.

일단 집에서 대기하라고 연락을 받았다. 출근하는 길,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학교의 연락을 기다렸다. 모두 처음 있는 일이라 정신이 없는 것이 느껴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우리 반 클래스팅, 구글 클래스룸, e학습터, 위두랑으로 계속적으로 상황을 안내하였다.

**첫째, 우리 반 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우리 반 모두가 코로나 검사 대상자입니다.**

**둘째, 모두 자가격리를 하여야 합니다. 기간은 질병관리본부 회의 후에 정확히 안내합니다.**

**셋째, 자가격리 기간 원격수업을 진행합니다.**

위 내용이 당장 학생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출근을 준비하고 계셨을 학부모님들도 참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이라, 최대한 빨리 안내하고 싶었다.

오전 9시에 줌(Zoom)으로 우리 아이들을 만나서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하는 것부터, 오늘의 일정을 안내하였다. 보통 원격수업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데, 안내를 받은 우리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안심되고 대견한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다.

보건소 앞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학부모님들께 반복적으로 상황을 안내하였고, 책임인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온라인 게시판에 업데이트하였다. 코로나19 검사를 처음 하는 아이들이 겁내지 않도록 토닥이며 응원해주었다. **토요일 오전**, 다행히도 우리 학교 학생들은 결과가 모두 음성이었다. 비록 교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었지만, 교내에서 전파가 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자가격리하는 동안, 이 상황에 대해서 확진자인 친구를 원망하지 않도록 계속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고, 옆에서 걱정하는 가족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 순간도 지나가리라! 갑갑한 이 시간들을 묵묵히 견뎌내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대견하고, 사랑스럽다. 장하다! 🍀



※ 행복한 교육 웹진(www.happyedu.moe.go.kr)에서 보다 다양한 기사를 확인하세요.

# 위기를 기회로! 코로나19 속에서 발전하는 음악교육

글\_ 오기쁨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 음악부장 교사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 개최 예정이던 공연과 전시가 잇따라 취소되며 많은 예술인은 설 자리를 잃었다. 문화예술의 침체로 예술교육은 방향을 잃었다. 도제식 교육방식에 뿌리를 둔 실기 위주의 예술교육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축소 운영이나 갑작스러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다. 예술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은 교육 현장의 교사 몫이 되었다. 대부분 예술학교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합창이나 합주 등의 음악수업에서는 전체 수업 시간을 수강생에 비례하게 나눠 각자 수업을 받는 방식 등으로 진행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정확한 소리의 전달은 일정 부분 포기해야 했다. 또한 실기시험의 경우 각기 다른 환경에서 각자 촬영하여 시험이 진행되어 형평성 있게 성적이 산출되기가 어려웠다. 대면 실기를 시행할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클래식 음악 전문학교인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는 그동안 찾아가는 음악회, 해외 연주 기행, 정기연주회 등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도모해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을 피할 순 없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예술교육의 위기는 기존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했다. 예술교육 기능의 손실을 막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향을 탐색했다. 본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의 예술교육의 방향과 대안을 소개한다.

## 우리 학교의 방역수칙 준수 상황

우리 학교는 대전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비롯해 거리 두기, 기숙사 방역, 외출 시 PCR 검사를 하는 등 학교 내 방역에 집중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 레슨과 비대면 레슨을 병행하였다. 대면 레슨은 하루에 출강하는 강사의 인원을 제한하여 우리 학교 교사와 코로나19 방역 활동 지원 인력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레슨 시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강사 공지란을 통하여 수시로 교육하고 있다. 방학 중 대면 레슨을 진행하더라도 음악과 교사들에게 레슨 장소와 시간을 알려 혹시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취할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비대면 전공 레슨 및 음악수업 진행

우리 학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1:1 전공 레슨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음악 레슨의 경우 소리의 울림, 작은 몸짓과 표정까지도 세세하게 확인되어야 하는데, 비대면 레슨을 할 경우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힘들다. 따라서 비대면 레슨 초창기에 음악부 교사들은 여러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해 모의 레슨을 진행하며 가장 음질이 좋은 앱을 찾도록 노력했다. 또한 학생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실기지도 강사의 피드백을 받으며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가 자리 잡히면서 레슨 진행에 대한 실기지도 강사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은 비대면 레슨으로 인해 학생들의 실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으며, 최적의 효과적인 레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합창, 합주 수업은 서로의 소리를 듣고 하나로 통합해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과목이다. 따라서 합창과 합주 수업 시 면적당 인원 제한을 준수하여 1,500석 수용이 가능한 대강당에서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후 수업을 진행하는 등 최대한 수업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노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술교육의 위기는

기존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했다.

### 온라인 정기연주회 개최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대란 관객들과의 소통의 장이며, 배움의 터전이다. 그러나 작금의 재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무대에서 실황 공연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이에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한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정기연주회 협연자를 선발하기 위해 몇 차례 오디션을 열어 협연자를 선발했다. 선발된 협연자들과 전교생이 함께 음악을 녹음하고 연주를 촬영하며 공연을 준비했다. 실제 공연장에서 전달하는 연주의 감동을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해 수차례의 녹음과 촬영을 반복하며 시간과 정성을 다했다. 학생들이 연주한 곡을 녹음하여 직접 들으면서 파트별로 함께 고쳐나가야 할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개선해나갔다. 이렇게 완성된 영상은 우리 학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되었고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코로나19 이전의 음악을 준비하는 방식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지만, 현시대에 맞닥뜨린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학생들이 한층 성장하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 온라인 실기시험 시행

예년의 실기시험은 5인 이상의 실기지도 강사들과 우리 학교 음악부 교사들이 장시간 채점하는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기숙학교인 우리 학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인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 강사가 교내 방문이 어려운 점을 이유로 기존 실기시험 진행 방식의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교내 음악부 교사가 대면으로 실기시험을 치를 때 학생별 실기시험 연주를 촬영한 후, 실기지도 강사들에게 촬영 영상을 제공하여 채점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한계를 충분히 극복하면서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에 더 많은 실기지도 강사들이 실기시험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같은 환경에서 촬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객관적이고 효율적이었다.

### 교육철학의 힘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은 그동안 바쁘게 달려오기만 했던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음악을 하는 진정한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했으며, 꿈을 위해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우리 학교가 막막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학생들을 세계 최고의 음악인으로 양성한다는 우리 학교의 교육철학이 작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이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찾아와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도록 힘썼다. 이러한 발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후에 더욱 빛을 발하리라 생각하며, 하루빨리 학생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

## 위드 코로나 시대 예술교육의 방향과 대안

글\_ 김인실 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수



이 글을 읽는 독자의 연령대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생활에서 예술수업 시간의 추억을 떠올려 보았으면 합니다.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즐거운 수업이었나요? 나의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며 희열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한 경험이 있었나요? 친구들과 함께 또는 혼자 작품을 완성한 후 뿌듯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 모든 질문에 '예'라는 답을 하셨다면, 당신은 정말 의미 있는 예술수업 경험을 해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학교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술수업을 경험하긴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술에 무관심할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 놀랍게도 어린 시절 학교의 예술수업이 너무 지루했거나, (잘못된 평가 방식으로) 재능이 없다고 느꼈거나, 과도한 비판을 받았던 기억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술은 인간의 대표적 창조활동이므로 예술교육을 단순히 제공하면 자동으로 아이들의 창의성이 키워진다는 사고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리고 진지하게 교육으로서의 예술이 아이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예술교육이 갖는 차별적인 만남, 접촉, 표현, 그리고 소통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지속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더욱 치열한 고민과도 연결됩니다.

### 한국 예술교육의 발전과정과 현재

우리 예술교육의 역사는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지만 놀라운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동인은 아마도 2005년에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등장일 것입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목적을 다룬 제3조는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신인 문화관광부와 교육부의 전신인 교육인적자원부가 함께 2004년에 발표했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점은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역량 강화로 기존의 기술전수 중심의 예술교육에서 전인교육으로의 전환을 강조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멈춘 이때가 어찌면 예술교육의 전환과 발전을 위해 모든 관심과 고민이 함께 시작될 전환점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서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되어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6년부터 시작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문체부와 교육부 간의 협약에 의해 추진되어 2021년 현재까지 학교 밖과 학교 안 예술교육의 확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을 복기해 보면,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과 성장에 대한 고민은 학교 내 예술교사와 예술강사의 임무로 치부되어 온 경향이 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멈춘 이때가 어찌면 예술교육의 전환과 발전을 위해 모든 관심과 고민이 함께 시작될 전환점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 워드 코로나 시대의 예술교육의 방향과 대안

예술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고 시험을 통해 일괄적이며 획일적인 방식으로 평가받는 과목이 아닙니다. 예술교육의 목적은 단순 지식추구나 기술전수가 아닌 표현력과 상상력, 창의력, 그리고 사회성 등 전인교육을 목표로 발전해 왔습니다. 창의력 개발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학교 안에서 꾸준히 이야기되어 왔지만,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인성과 창의력을 위한 교육이 갈급하진 않을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디지털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결국 예술교육이 이제까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바와 같이 호기심과 '왜'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되는 비판적 사고능력,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등으로 귀결될 테니까요. 특히 21세기 인간의 핵심역량으로 알려진 4C(Communication·의사소통능력, Collaboration·협업능력, Critical Thinking·비판적 사고능력, Creativity·창의력)는 AI와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미래사회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예술교육의 중요함과 더불어 학교에서 이와 같은 교육이 더욱 필수적이고 진지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의교육은 예술교사와 강사의 예술적 전문성을 토대로 기존의 학교 내 교육과정 안에서 제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부모-교사-예술교사와 강사의 협업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01** 보호자(부모)의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되며 이러한 적극성이 행동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예술교육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은 많지 않으십니다. 아이의 진로가 예술전공이 아니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예술교육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까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대학입시에

있어 중요한 과목의 보조적 수단 정도로 치부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술교육이 학교가 아닌 집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될 시, 집이라는 공간은 교실이 되는 것과 동시에 공연장, 미술관, 아이의 연습실로도 기능합니다. 부모님의 칭찬과 관심, 예술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실제로 같이 창작해 보는 시간들을 통해 코로나19로 단절된 접촉과 소통의 미학을 가정에서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02** 학교 시스템 내에서 기존교과와 예술수업의 접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교사와 예술교사 그리고 예술강사의 상상력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수업은 각 영역별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협업과 융합의 중요성을 설파합니다. 역사 수업 안에 문학을, 수학 수업 안에 음악 리듬의 규칙성을, 국어 수업 안에 연극을, 영어 수업 안에 뮤지컬을, 그리고 미술 수업에서는 물감의 화학성을, 음악수업에서는 나누기와 분수를, 무용 수업에서는 근육의 작동원리를 배우는 등 교과 간 협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엄청나게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사 간의 협업과 고민, 그리고 노력이 요구될 뿐입니다. 이러한 협업이 쉽지 않고 많은 고민과 노력을 요하기에, 이를 독려하기 위한 학교 시스템과 교육 정책의 지원, 그리고 교내 성원의 공감과 교장·교감 선생님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3** 비대면 수업 시 아이들의 소통과 협업을 장려하기 위한 장치에 대한 교사의 고민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비대면 수업보다 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만나서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케스트라 비대면 수업이 매우 흥미로웠다고 답했던 아이들과의 인터뷰에서 각자 파트를 연습한 녹음파일 합쳐보기, 서로의 연주 영상파일을 보고 이야기해보기 등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나 비대면 수업이라도 함께 게임 같은 것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소망도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의 희망사항에 귀 기울이고 이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 또한 사실 대단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지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부모-교사-예술교사와 강사의 더욱 강력한 연대와 협업 그리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토론과 실험,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디 코로나19로 마주한 이 어려운 시기를 각자의 해안과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시간이 결국 우리 교육 전반의 도약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반려동물 훈련·상담사

이찬중 이삭애견훈련소 소장

# 인간과 반려견의 행복한 공존을 꿈꾸다

반려동물 훈련·상담사는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고 교육해 보호자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직업이다. 이찬중 이삭애견훈련소 소장은 20년 이상 경력의 반려동물 훈련·상담 전문가로 SBS 'TV 동물농장'에서 활약해 대중들에게도 익숙한 인물이다. 지난 9월 10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이삭애견훈련소에서 이 소장을 만나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글\_양지선 기자



66

훈련소에 오는 모든 반려견의 행복, 나아가 생존이 나에게 달렸다는 책임감이 있어요.

99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한 반려동물 양육 현황 결과에 따르면 전국 638만 가구에서 860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로 환산 하면 약 1,500만 명, 즉 국민 4명 중 한 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이다.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최근 몇 년 새 방송가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콘텐츠가 눈에 띄게 늘었다. 그중에서도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은 꾸준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해결사로 등장하는 반려동물 훈련·상담사는 마치 동물들의 마음을 읽듯이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행동을 교정해 놀라움을 안긴다.

이찬중 이삭애견훈련소 소장도 SBS 'TV 동물농장'에서 15년째 훈련사로 활약해오며 대중들에게 익숙한 인물이다. 올해로 경력 21년 차인 이찬중 소장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내리는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반려동물 훈련·상담사라는, 이전에는 다소 생소했던 직업에 대한 인식도 높였다.

이찬중 소장은 “훈련은 반려동물을 단순히 억압하고 벌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행동을 분석해 반려견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이끄는 것”이라며 “반려견과 보호자의 성격, 가족 구성원, 주거 환경 등을 각각도로 분석해 오랜 시간에 걸쳐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직업을 선택하게 됐다는 그는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성공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소장과의 일문일답.

하나, 반려동물 훈련·상담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보호자와 반려견이 일생을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반려견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고, 사회화 과정을 가르친다. 훈련사의 지도 아래 보호자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문제행동이 심각한 반려견은 일정 기간 센터에 입소해 훈련을 받는다.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단기간에 문제행동이 고쳐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꾸준히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려견의 나쁜 습관이나 문제행동은 보호자가 알게 모르게 강화해온 결과다.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원인을 먼저 분석해야 하고, 훈련에 앞서 반려견과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 반려견의 문제행동 분석 능력은 어떻게 길러야 하나?

선천적으로 강아지마다 가지는 기질, 환경적 요인, 보호자의 성격 등 다양한 요인으로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패턴이 달라진다. 많은 경험이 쌓여야 분석이 가능하다. 올해로 21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1 이찬중 이삭애견훈련소 소장은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직업을 선택하게 됐다고 전한다. 그는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성공"이라고 말했다.

2 이 소장이 센터에 입소한 강아지 '보배'에게 경례를 가르치는 모습. 이 소장을 바라보는 보배의 천진난만한 표정이 사랑스럽다.



2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다. 예전에는 문제행동을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뒀는데, 이런 방법은 강아지들에게 안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반드시 후유증이 발생하게 된다.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낮은 환경에서 적응을 못 하고,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마치 풍선처럼 한쪽을 억지로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제행동은 고치다기보다 대체 행동으로 습관을 들이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동물행동학, 훈련에 관한 공부 이외에도 심리학, 특히 아동심리를 공부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됐다.

셋, 이 분야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가족을 기르며 동물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자랐다. 그중에서도 강아지는 친구처럼 항상 곁에서 함께 했던 기억이 남아있다. 학창시절에는 특별한 꿈이 있다기보다 단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강아지를 떼어놓을 수 없었다. 그때는 반려동물 훈련사라는 직업이 있는 줄도 몰랐다. 나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하는 형님(이용중 이삭애견훈련소 대표)을 통해 이 일을 접했고, 운명적이라고 생각했다. 앞뒤 재지 않고 뛰어든 건 강아지를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였다. 다른 목표를 가지고 직업을 선택했으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일을 하지 못했을 거다.

넷, 반려동물 훈련·상담사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제일 중요한 것은 관찰이다. 반려견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면까지 집중해서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강아지가 꼬리치는 모습을 보면 단순히 사람을 좋아해서인지, 무언가 원하는 게 있어서인지 등 여러 가설을 설정하고 증명해보는 거다. 이를 통해 강아지의 행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훈련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스스로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이라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기억해야 한다. 말이 통하지 않는 동물을 만나 이들을 이해시키고 새로운 행동패턴을 만들어주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학습의 결과다. 인내심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 훈련에 실패하면 그 강아지들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훈련소에 오는 모든 반려견의 행복, 나아가 생존이 나에게 달려 있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기견보호소 봉사활동도 추천한다. 자라온 환경에 따라 심리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관찰하고 체험하면서 느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책임감, 인내심까지 모두 기를 수 있다.

다섯, 반려동물 훈련·상담사의 미래 직업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요즘 사람들이 참 많은 일을 하며 바쁘게 산다. 모든 것이 기계로 빠르게 대체되는 세상인데, 따뜻함과 안정감은 부족하다. 1인 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의 정을 나누기도 힘들다. 결국 반려동물이 주는 따뜻한 체온을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반려동물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은 기계가 아닌 오직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전에는 훈련된 강아지를 과시용이나 부의 상징처럼 여기곤 했다. 개는 마당에서 키우는 것이라는 기성세대의 인식도 강했다. 이제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현재 과도기를 지나가는 과정이고, 앞으로는 반려문화가 더욱 개선될 거라 바라본다.

마지막, 반려동물 훈련·상담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했으면 좋겠다. 누구나 슬럼프를 겪게 되는데, 현재 일을 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맘이 든다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뜻이라고 여기면 된다. 힘들다는 것은 무언가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실천을 통해 한 단계씩 성장할 수 있다.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포기하지 말고 극복하다 보면 어느새 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있을 것이다. ㉠

TIP BOX | 💡



TIP. 1 — 준비 과정

특성화고등학교의 애완동물과, 동물산업과에 입학하거나 전문대·일반 대학에서 애완동물과, 동물산업과, 동물자원학과 등에 진학하여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학이나 기업 부설 평생교육기관에서 반려동물관리전공, 애완동물관리전공을 이수하거나 민간 훈련 기관을 통한 교육도 가능하다.

TIP. 2 — 적성 및 흥미

동물의 특성을 잘 알고 돌봐야 하며,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과 자료 수집을 즐기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세심한 관찰력이 필요하며, 돌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내심과 끈기가 있어야 한다.

※ 참고: 진로정보망 커리어넷(<https://www.career.go.kr/>)



도선굴 가는 길

안온한 굴(窟)의 도시

구  
龜

미  
尾

새벽 도로를 달린다. 까맣고 고요한 길이 비단처럼 펼쳐진다. 긴긴밤 끝에 이른 하늘은 투명함을 입고 어느새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 아스팔트에 내려앉은 공기에서 신선함이 번져온다. 코를 거쳐 가슴에 닿은 가을이 온몸으로 번져나간다. 청량한 새날의 온기가 손을 뻗어온다. 붉은 계절의 손을 잡고 새벽을 거쳐 아침으로 들어간다. 떠오르는 해에 아침 이슬이 반짝인다. 노랗고 붉다. 단풍 같은 발그레함이 마음을 물들여온다. 곱다. 고운 가을이 메마른 속에 손을 덧댄다. 완연한 가을을 더 빨강고 누렇게 물들이려 나선 길, 시월의 여행지는 구미다.

글\_강지영 객원기자

단풍이 만든 굴을 지난다. 여름내 매미의 집이 되어주던 나무는 싱그러운 녹음을 벗고 어느새 완연한 가을을 빚어 두고 있다. 금오지(金烏池)와 나란히 놓여 산까지 미끈하게 이어지는 도로를 탄다. 붉은 나뭇잎 사이로 아른거리는 금오정(金烏亭)과 못의 풍경은 금오산을 한 점의 그림으로 만들어 둔다. 길은 막힘이 없고 가을은 무르익어 간다. 금까마귀가 있는 산이라 하여 금오산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이곳은 거인이 누워 있는 듯한 형상으로 거인산이라 불리다가 하면 누운 불상의 모습을 하고 있어 와불산이라 불리기도 한다. 야은 길재 선생을 그리기 위해 지은 채미정과 정상 암벽의 마에여래입상,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쌓은 금오산성, 정상의 약사암 외에도 금오산 곳곳에 보물 같은 옛 시절이 서려 있다.



첫 여정인 해운사를 찾는다. 산성을 지나가는 여정은 다음으로 미뤄두고 불이 난 듯 붉은 산 풍경을 가슴에 담으려 케이블카를 탄다. 빨간 케이블카는 산 중턱의 해운사까지 이어진다. 케이블카는 명실공히 1970년 도립공원 1호로 지정된 금오산의 또 하나의 즐길 거리로 자리 잡았다. 공중에 매달린 네모난 차를 타고 산을 오른다. 나무가 만들어낸 붉디붉은 해가 눈을 채워온다. 완연해진 단풍이 치열했던 여름을 매만진다. 창으로 불어 들어온 시원한 바람이 여름의 땀을 닦아 낸다. 바람을 맞고야 안다. 뜨겁고 아린 여름을 다부지게 지나왔음을. 여름 끝에 가을이 앞서 마중 나와 있었음을. 바알간 계절이 선물을 준비해 두고 있었음을. 바람에 하늘거리는 나뭇잎이 여린 손이 되어 등을 두드리며 말한다. 잘 찾아왔노라고, 애썼노라고, 모든 게 이젠 순조로울 거라고.

**붉은 산이 알처럼 품어 안은 해운사**

해운사로 들어간다. 해운사는 도선 대사가 신라말에 창건한 절이 있던 자리에 들어선 사찰이다. 이곳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어 절터로만 남아있던 대혈사 자리에 해운암이 서고 이후 해운사가 되었다는 유래가 서려 있다. 붉은 산이 알처럼 품어 안은 해운사가 여객을 맞는다. 그 이름에 걸맞게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해운사 경내를 걷는다. 세차게 흘러내리는 계곡물 소리를 벗 삼아 계단을 오른다. 산이 깊기 때문일까, 산에 담긴 시간이 길기 때문일까. 소담한 절이 가늠할 수 없는 큰 날갯짓을 보내온다. 그 소리 없는 울림이 어미의 품이 되어 여객을 안아준다. 지친 길손을 조건 없이 품어주는 산의 손길에 가슴이 딱딱해진다. 대웅전 한끝에 앉아 턱까지 차오른 숨을 천천히 토해낸다.

해운사 옆으로 난 산책로를 따라 멀리서부터 번져오는 소리를 찾아간다. 퍼져나가는 것을 속성으로 타고난 소리가 아늑한 굴을 만든다. 끝없이 샘솟아 오르는 소리가 정수리 위의 아늑한 지붕이 되어 놓인다. 물은 아래로 흘러 내리고 여객은 물길을 거슬러 오른다. 이 어긋남이 가져



- 1 대혜폭포
- 2 해운사
- 3 도선굴
- 4 금오서원

오는 메아리가 가을 하늘을 투명하게 비쳐낸다. 이끼 낀 돌을 넘고 흙을 거머쥔 나무뿌리를 밟아 지나와 이른 길 끝에서 웅장한 폭포를 만난다. 물길에 금오천에 이르러 못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는 큰 혜택을 준다 하여 대혜폭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 폭포에는 왜군 침범 당시 만들었다는 아홉 우물과 일곱 못이 그 기원이 있다는 설이 깃들여 있다. 물이 폭포의 형상을 가려버릴 만큼 울창한 소리를 낸다며 누군가 암벽에 새겨 둔 명금폭(鳴金瀑)이라는 이름 때문에 명금폭포로 불리기도 한다는 폭포를 앞두고 멍하니 섰다. 쏟아져 내리는 폭포에서 소리의 굴을 본다. 그 속에서 아프게 귀를 지나간 수많은 말이 나를 찌르는 바늘이 아닌 매만짐이었을 깨우친다. 누군가가 쉬어갈 수 있는 울림의 터가 되어주는 일은 때로는 시리고 저린 일임을 새삼 느낀다.

**도선굴을 향한 가파른 여정**

폭포에서 등을 돌려 도선굴로 간다. 굴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가파르기로 유명한 도선굴은 신라말 도선 대사가 도를 깨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들어서자 두 나라를 섬길 수 없다며 산을 찾아든 길재 선생이 깨우침을 위해 찾은 곳이기도 한 이곳은 이후 왜군을 피해 백성들이 숨어든 쓰린 역사도 가지고 있다. 두 발과 두 다리를 뺀 가파른 오르막을 오른다. 험하고 좁은 길옆은 벼랑 끝 낭떠러지다. 이 끝에 대체 무엇이 있을까. 무엇을 위해 이 험난한 여정을 준비했을까. 식은땀이 나게 하는 좁디좁은 돌길을 네발짐승처럼 기어오른다. 굽고 휘어진 길 끝에 아늑한 굴이 있다. 어미의 뱃속 같은 굴이 험로의 정점에 놓여 있다. 굴바람이 귀를 매만지며 오기를 잘 하지 않았느냐는 반김의 말을 전해온다. 그리하여 돌아서 선 곳에서 장관을 선물 받는다. 누런 들판과 붉게 물든 산과 구름과 기암절벽이 명화가 되어 발아래 놓였다. 검은 굴이 험로를 불평하고 두려워하던 여객을 내치지 않고 말없이 끌어안아 주며 애썼노라는 한 마디를 더해준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도는 이유는 무엇일는지.

멍하니 굴 끝에서 풍경을 가슴에 담는다. 금오산의 여운을 머금고 나와 찾은 곳은 금오서원이다. 금오서원은 채미정과 함께 야은 길재 선생을 기리는 마음을 담고 있는 터다. 야은 길재 선생은 조선 조정의 부름을 거부하고 금오산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한다. 그 절개를 높이 산 선조가 선생의 정신을 기려 금오서원을 건립하도록 하고 영조가 채미정이라는 정자를 짓는다. 역사의 질곡을 거쳐 선산을 남산에 자리 잡게 된 금오서원은 길재 선생을 비롯하여 김종직, 정봉, 박영, 장현광 선생의 위패를 모셔두고 있다. 동재, 서재, 정학당, 상현묘를 지나 정자에 이른다. 정자 앞으로 누런 들판이 펼쳐진다. 들판을 메운 지난 역사가 보석처럼 반짝거린다. 구미는 더없이 풍요롭다. 구미의 완전한 가을을 머금는다. 겨울이 기다려진다. ㉠

# EDUCATION NEWS

##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회복 위해 하반기 5조 3,619억 투입

교육부는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 신속한 교육회복 및 미래교육 학습환경 지원을 위해 나선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에 총 5조 3,619억 원 이상을 교육회복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습격차 해소 및 심리·정서 지원, 과밀학급 해소 등에 1조 5,871억 원, 학교방역 및 돌봄지원 등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8,093억 원, 미래교육환경 기반 조성에 2조 7,017억 원을 지원한다. 모든 학생의 학습결손 해소와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더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과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여건 전반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학교급별, 과목별로 다양한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시도별 수석교사, 고교 진로진학 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학습 상담을 실시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과 학업 자신감 회복을 지원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학력보장법」은 2022년 2월까지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며, 2022년 9월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하여 희망하는 학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진로성숙도, 자기조절학습 등 비인지적 영역의 평가 항목을 확대하여 개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심리·정서, 사회성, 건강 등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별 전문상담 및 초·중등교원 등으로 구성된 자료개발 전담팀(TF) 운영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담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학급단위 자율적 심리 지원을 돕는다. 또한, 학생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 이외 별도 학생 건강지원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하여 신체·정신건강 관리로 확대 강화한다.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도 해소한다. 우선적으로 2학기에 1,155 개교에서 학급증설을 추진하며, 학교 신·증설과 재정투자사업 등 관련 제도개선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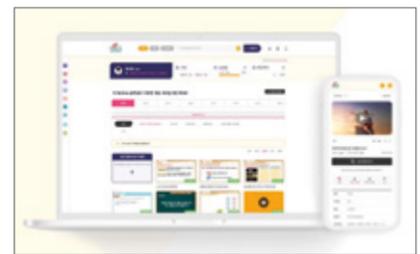
[표] 2021년 하반기 교육청의 교육회복·미래교육 환경구축 예산 편성 현황

구분	금액(백만 원)	
학습격차 해소 및 심리·정서 지원·과밀학급 해소 등 지원 (1조 5,871억 원)	학습지원: 각종 교육지원프로그램 및 방과후학교(유아포함) 수강료 (전액)지원	306,084
	심리·정서 지원	94,846
	과밀학급 해소(학급 증축 및 한시적 기간제)	174,200
	원격·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	997,948
학교방역 및 돌봄 운영 지원 등 교육 안전망 구축 (8,093억 원)	유아 원격교육 기반 지원	14,026
	방역 인력 및 물품 확보	257,060
	초등 돌봄 운영 지원	26,828
	직업계고 안전 강화	68,414
미래교육환경 기반 조성 (2조 7,017억 원)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 등 학교현장 지원	457,018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267,485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80,931
	학교 교육환경 개선	1,950,075
기존 학교 신·증설 추가분 등	403,224	
합계	5,098,139	

# EDUCATION NEWS

##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운영 플랫폼 '잇다' 개통

교원의 안전하고 편리한 수업자료 제작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운영 플랫폼 '잇다(ITDA)'가 문을 열었다. 교육부는 '잇다'를 통해 교원들이 공공·민간의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수업자료로 제작·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현재 1만 5천여 종의 교육용 콘텐츠를 확보했으며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의 27개 기관에서 6만여 개의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탑재할 예정이다. 탑재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교사들이 쉽고 편리하게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저작 및 활용 도구도 제공한다. 이외에 플랫폼 내 커뮤니티를 마련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소통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자원이 교육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연결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잇다'는 '지식샘터', '디지털교과서', '위두랑' 등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공공·민간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에듀넷 통합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든다

교육부는 경찰청, 푸른나무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나선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전담경찰관·청소년 경찰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예방교육 활동 강화 및 업무역량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지원한다.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대국민 교육과 홍보 활동 등도 함께 진행하면서 협력하고 소통한다. 이를 위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상담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상담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사이버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가족의 정서심리 회복을 위해 현장 방문 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학교폭력 피해자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 지방대 의·치·한·약대 '지역인재 40% 입학' 의무화

지방대학 의·치·한·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이 40%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지난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지원 전략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한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기존에 30% 이상 선발을 권고했던 규정은 40%로 올리고 의무화했다. 다만 인구가 적은 강원과 제주 지역은 20% 이상으로 정했다. 지방대학 간호대학의 최소 입학 비율은 30%(강원·제주 15%)로 규정했다. 지방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소 입학 비율을 15%(강원 10%, 제주 5%)로 규정했다.

지역인재 요건도 구체화된다.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마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2

# 159,86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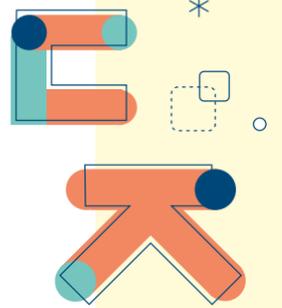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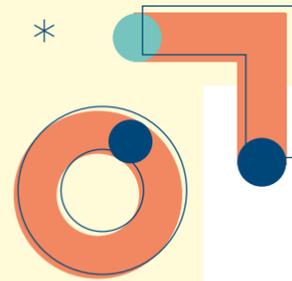
##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초·중등 학생은 얼마나 될까?

2020년 기준으로 39개국 1,699개교 159,864명의 초·중등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태국은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가장 많은 나라로, 현재 4만 6천 명이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인 PAT 과목 중 하나로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다. 13억 인구의 인도에서는 지난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였다. 베트남은 2016년에 시범교육을 시작하여 지난해 제2외국어로 승인하였고 이어 올해 2월에 제1외국어로 채택하였다. 이외에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러시아 등이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다. 초·중등 학령기 단계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여 미래 친한·지한 인재를 양성하는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 있다.

전 세계에서 쓰이고 있는 언어는 7,000종에 이르며, 이중 절반 이상이 사용되지 않아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어와 한글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인구가 늘고 있다. 해외에 운영 중인 한국어 보급 기관은 2천 곳이 넘으며, 이 기관에 등록된 수강생도 25만여 명에 이른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도 꾸준히 증가하여 전 세계 86개국 300만 명이 응시하였다.

어디 그뿐인가?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은 세계 언어학자들도 주목하는 부분이다. 유네스코는 1997년 글자로서는 유일하게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인류가 사용하는 문자 중에서 창제자와 창제연도를 명확히 기록한 것도 한글이 거의 유일하다.

한류를 타고 한국어와 한글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모두 함께 우리 말과 글에 자긍심을 갖고 소중하게 가꿔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한계를 넘어 더 큰 세상으로의 취업!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 매치업(Match業)



###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이런 부분이 고민이에요

#### 3년 차 직장인 이00씨

점점 능력 좋고 똑똑한 후배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뒤쳐지지 않도록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방법 없을까요?

#### 00기업 대표 김00씨

우리 회사와 잘 맞는 맞춤형 인재를 찾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인재 어디 없을까요?

### 우리의 고민을 풀어줄 든든한 해결책, 새롭게 달라진 2021년 매치업(Match業)

#### 2021년 매치업(Match業),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신산업분야 확대
- 보다 쉬운 이용방법으로 접근성 향상
- 인터넷 게시판 활용한 피드백 시스템 도입
-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지원

#### 매치업 Match業 이란?

4차 산업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 등을 위한 산업 맞춤 단기 직무인증과정

### 업그레이드 된 매치업(Match業)으로 더 넓은 세상을 만나다

더 큰 기회의 장을 열  
신기술·신산업분야 확대

한층 편리해진 이용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20년  
각 교육기관  
개별 운영

21년  
K-MOOC  
연계

교양-기초-심화까지  
원스톱으로 전문성 UP

신산업분야도 매치업으로 한번에!

\* 수준별 학습 지원을 위해 기초·교양중심의 K-MOOC 강좌 연계 수강할 수 있도록 수준별 강좌 수강 로드맵 제시

### 매치업(Match業)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학습자

- 매치업 홈페이지 접속 (www.matchup.kr)
- 교육과정 및 인증평가 메뉴 클릭
- 교육과정 메뉴 클릭
- 수강하고자 하는 분야의 교육과정 클릭
- 수강신청 클릭
- 교육과정 확인 후 수강신청

### 내 삶을 UP시킬 쉽고 빠른 방법, 매치업(Match業)

참여를 희망하는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은 메일 문의 matchup@nile.or.kr